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그지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에베소서 6장 1-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83호 2012년 5월 12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아버지 역할 증대, 신앙으로 고치

CT, 리치몬드 헬스케어 기관의 '아버지들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보도

미국은 빠르게 아버지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지난 25년간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자녀가 배로 늘어났으며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실적인 아버지 없이 자라난 아이들이 가난, 질병, 죽음을 겪거나 비행, 범죄, 마약을 하거나 성적 부진, 퇴학, 아버지 부재의 대물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5-20분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얼굴을 마주치는 횟수는 하루 평균 2.7회 정도이고 그 시간도 각각 10-15초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30-50시간이나 됐다.

이것이 바로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정을 나가거나,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부재 현상을 합리화하고 얼버무리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봐도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시험 성적이 낮고 학업 성취 속도가 느리다. 거기다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가난해질 확률은 아버지와 함께 자란 아이보다 다섯 배나 높

고 극빈자가 될 확률은 열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 아버지 없이 자라난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쉽고 말들은 미혼모가 될 확률이 70%나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아프리카 아메리칸의 가정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시 경우, 2007년에만 65%의 아이들이 싱글맘에 의해서 출생됐다. 그러나 흑인 여성의 경우, 84%나 아버지 없이 아이들을 키워야만 하는 불행이 반복되고 있다.

한가정의 가장이자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아버지가 없으면 정부 역시 심각한 공황에 빠지게 된다. 무한정으로, 푸드 스탬프, 주택 지원, 학교 급식간의 정부 보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기관 역시 아버지들을 가정으로 되돌리려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크리스천들의 도움 즉 신앙만이 아버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리치몬드 커뮤니티의 크리스천들과 정부 기관의 네트워크로 가정을 떠난 아버지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다(Where Are the Dads Treating Richmond's Fatherless Epidemic).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은 안정적인 가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모두가 바로 리치몬드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RFFI는 아버지 부재 가정의 문제

가 단순히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공중 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켰다. 따라서 정부가 가정은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

에 간섭이나 조정을 하지 않았던 전통에서 벗어나 바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 지역사회 즉 국가를 운영하는 기초 단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결국 리치몬드 시는 감옥에 투옥된 아버지들까지도 일정기간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도까지 감행해 연간 3천5백만 달러를 들여 성공을 거뒀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시 정부의 소위 "부성 회복 정책"은 지난 2009년 현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에 '아버지의 날'을 앞두고 기고한 시기와 맞물린다.

"아버지는 제가 겨우 두 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를 무척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소박한 가족애, 아버지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2면으로 계속)

버지니아 리치몬드 시 재정 편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안정적인 가정을 재편성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은 연간 2억5백만 달러이다. 리치몬드 시는 다른 주 정부나 시 정부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건강한 가정 조성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순기능을 해야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부 예산이 감소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2009년부터 연방 정부 공중건강 프로그램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아버지들을 다시 그들의 가정으로 연결시켜주는 커뮤니티 문화를 창조하자"는 슬로건을 리치몬드 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즉 리치몬드 공중 보건국은 '리치몬드 가정과 부성 캠페인(the Richmond Family and Fatherhood Initiative(RFFI))'을 지역사회 크리스천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으로 공동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혼모 출산이 줄어들고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의 기둥으로 자리 잡



2면
홀스쿨링에서도 '동성애=죄' 가르칠 수 없다!



3면
소그룹 인도자는 영적원리 이해가 우선



7면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황의영 목사(SBM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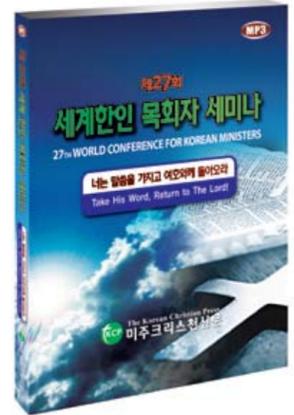
14면
해피 라이프 (1) 석은옥(고강영우 박사 부인)



16면
세상 리더들과 구별된 리더가 돼라!

사 고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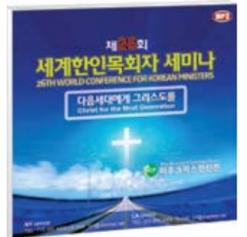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 금단교회에서 개최한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9편 전체가 2장의 CD(MP3)로 나왔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5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교회부흥과 땅끝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6강의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의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총 소요시간 24시간. 2개의 CD로 묶어 가격이 20달러.

강사는 김홍도, 소강석, 권태진, 황의영, 천성덕, 김기원, 조일래, 송용걸, 이영섭, 이정현, 김승욱, 홍민기, 조일구, 김규동, 송규식 목사님과 본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님 강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

또 제 26회 목회자세미나와 평신도세미나 CD 2벌도 함께 발매한다. 27회와 함께 총 4장의 CD를 합쳐 30달러에 판매 한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20달러(제 27회 목회자세미나)
30달러(27회 & 26회(평신도 포함) 우송료 별도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3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M. Div)
권영미, 박기현, 박창용, 엄재하, 이경민, 이상훈, 이희순, 임창필, 최현석
- 선교학석사(M. Miss)
장귀옥
- 여 교역학(Diploma)
박명애, 이미진, 최완옥
- 신 학 사 (B. Th)
방정훈, 이순옥, 제은숙, 최용녀, 황해옥
- 음악학사(B. CM)
김용구, 김진섭

일 시: 주후 2012년 5월 21일(월) 오후 8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 처: (718)463-7163
(718)886-4040
(646)717-2733

미주한인예수교 장 로 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 장 장 영 춘 박사 이사장 이 용 결 박사



시론

가정을 견고히 세우십시오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세워지며 행복을 나누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고, 미래의 주역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과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힘든 것을 녹이는 힘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용납함을 경험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약한 자를 배려하며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정을 통해서 사회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로 인하여 세상은 놀라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꿈은 제일 작은 단위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아픔은 집(house)은 있지만 가정(home)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꿈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가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고 깨어지고 무너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기본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픔 속에 성장한 자들이 장성하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꾸러가는 자신들의 가정에서 어려움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화제가 되었던 20대의 청년이 70이 넘는 노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찍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가정에서 당연히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세대의 모습은 무너진 가정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면 사회 문제의 7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회학자의 보고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가정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가정은 지식, 경험과 힘만으로 가꿀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인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1)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됨을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가정을 말씀의 기준으로 가꾸고 보존하십시오. 세상의 유행이나 수시로 변하는 기준이 아닌 영원토록 불변하는 거룩한 말씀으로만 가정은 온전히 세워집니다. (3)매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가정을 세워 가십시오.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매순간 받는 것입니다. (4)깊은 기도와 기쁨의 찬송으로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가정을 날마다 기도와 찬송의 영양분을 공급하며 거룩함으로 가꿔야 합니다. (5)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사랑과 거룩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자녀들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리하여 이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인들(Nation changers)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 세상에 해피 바이러스(happy virus)를 전하는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이 치유되며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5월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다시 세워지는 가정을 그려봅니다.

홈스쿨링에서도 '동성애=죄' 가르칠 수 없다!

LifeSiteNews.com, 캐나다 알버타 주정부 동성애옹호교육법 제정, 종교자유침해 보도

캐나다 알버타(Alberta) 주정부의 교육부 대변인 토마스 루카스주크는 주의 새 교육법(Education Act)에 의해 알버타 주에서 홈스쿨링(homeschooling)을 하는 이들과 종교 교육 기관은 동성연애 행위가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알버타 주정부 교육부의 홍보부 담당, 도나 맥콜(Donna McColl)은 가정에서 부모가 그들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의 홈스쿨 교육 과정에서 부모의 동성연애에 대한 가르침에 주 정부가 제한을 두는 것이며, 홈스쿨이나 사립학교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포함한 알버타 주의 모든 교육 기관의 성 정체성(sexuality)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알버타 주 정부가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반면 홈스쿨 옹호 단체인 홈스쿨 법적 변호 협회의 폴 파리스(Paul Paris)는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가정에서의 사적 대화를 교육부가 단속하고 불법화하려는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파리스는 개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홈스쿨 단체도 새 교육법이 기존에 있는 학교법(School Act)을 대체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 교육법은 현 학교법이 명시한 학교가 알버타 주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천명하였지만, 알버타 주의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시켰다. 그런데 이 인권법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으로 특히 기독교인들의 동성연애에 대한 신념을 공격하



오(Ontario)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에서 이와 유사한 논쟁이 있었고 이제 알버타 주에서도 학교에서 동성연애 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홈스쿨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법정 소송에서 홈스쿨에 대한 판결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자녀들을 천주교 신앙 안에서 양육하려는 것에 퀘벡 주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이 방해가 된다는 가톨릭 학부모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알버타 가정교육협회(Alberta Home Education Association)의 패티 말리는 알버타 주 교육부가 홈스쿨 가정에서 교육 시간과 가족 시간을 분리할 수 있다는 발상에 놀랐다고 말했다. 말리는 가정에서 모든 시간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간인데, 홈스쿨링 시간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알버타 주정부는 이번 교육부의 방침은 성 정체성이나 동성연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 정부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홈스쿨 법

“다른 성 정체성 존중하지 않는 교육 행위 묵인 않겠다”

VS

“정부 통제력 가정까지...홈스쿨과 부모의 표현자유 제한”

는 근거로 이용돼왔다.

알버타 주 교육부에 의하면, 기독교 홈스쿨링 가정은 가정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려줄 수 있지만 이것이 홈스쿨의 교육 과정이 아닐 때 가능하다는 말이다. 교육부 관리 맥콜은 한 가정이 가족의 신념을 말하는 것은 그 가족의 사정이지만 알버타 주의 사회의

기본 정신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2월 중순 캐나다 대법원은 퀘벡(Quebec) 주의 가정들이 주 정부의 윤리와 종교 문화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주 정부가 거부한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퀘벡 주 정부의 프로그램은 세계의 종교들

과 생활 방식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주 정부는 이것을 홈스쿨 가정을 포함한 퀘벡 주의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홈스쿨 옹호자들은 이 대법원 판결이 다른 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지난 2년 동안 캐나다의 퀘벡 주와 온타리오

주 정부가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종교와 성 정체성 그리고 도덕에 대해 가르치려는 내용을 간섭하고 정부의 통제력을 가정까지 미쳐 홈스쿨과 부모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면에서 계속)

자신을 '아버지 없이 성장한 아이'로 표현한 오바마는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 아버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서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녀들을 위해 좋은 학교와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고통 받을 때 그들의 삶과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아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 (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4.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소그룹 인도자는 영적원리 이해가 우선

리더십저널, 맥브라이드 그레이스대학 총장의 소그룹 리더 조건 6가지 소개

맥브라이드(McBride) 박사는 13년간 신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한 바 있으며 오리건 주의 조지 폭스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네브라스카 주의 그레이스 대학 총장으로 있다. 그는 20년의 소그룹 인도 경험을 바탕으로 소그룹의 성격적 기초, 소그룹 인도의 특징과 요소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해준다. 또한 성경공부의 주제, 방법, 과업, 기술 등의 영역에서 성공적인 인도자가 되도록 돕는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완벽한 자격을 갖춘 소그룹 인도자는 없다. 하지만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는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요소들은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도자가 갖추어야 할 6가지 조건들이다.

1. 영적 원리의 이해

디모데전서 5:22의 요점은 새 신자가 너무 일찍 많은 책임을 맡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소그룹 인도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충분한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해야 할까? 1년이면 준비되는 사람도 있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격려할 수 있으려면, 먼저 당신의 삶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3.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헌신

고린도전서 1:25에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그룹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개인 개발을



필요하다.

5. 배우려는 태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엡5:10).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배우기를 힘쓰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씀

일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14:40)는 말씀대로 이뤄져야 한다. 당신은 그룹을 인도하는 데 드는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는가?

위에서 제시한 항목들이 백찰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여섯 가지는 소

완벽한 리더는 없지만 필수적 요소 갖춰야 신앙성장, 헌신, 배우려는 태도 등 필요

만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영적인 원리를 알 뿐만 아니라 다음에 설명하는 특성들을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의 성장

베드로후서 3:18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고 한다. 영적 성장의 본이 되면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활동들에 시간을 투자한다.

4. 섬기고자 하는 열망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 인도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장차 인도자가 될 사람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그룹을 인도하는 책임을 기꺼이 맡는 태도가

은 모든 활동에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소그룹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을 때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당장 그룹 인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6. 시간을 투자하려는 결심

그룹을 인도하는데 드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이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룹 인도자로서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이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우리 중에 완벽한 자격을 갖춘 소그룹 인도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역이 골고루 잘 드러나야겠지만 누구나 강한 영역이 있는 반면, 한두 영역은 개발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것이다. 약한 영역에 대해 성령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시도록 내어드릴 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2면에서 계속)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자녀들의 얘기를 들으며 아이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버지는 아이들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 또한 '불안정한 아버지'로서 많은 실수를 했고, 일과 정치 때문에 아버지 역할도 제

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면서 "내가 만일 무언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아버지의 날'에 즈음한 오바마의 메시지는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고, 정책적으로도 아버지의 부재가 없는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따라

서 정부는 연구나 재정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앞장서지만 남자들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전적으로 지역사회의 신앙공동체의 몫이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공중보건국과 지역사회 신앙공동체는 미국사회에 정부와 신앙공동체가 아버지를 회복시켜 건강한 가정을 재건하는데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결론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며 자녀에 대

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즉 아버지가 길을 내면, 아들딸은 그 길을 걸어간다. 아버지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씨가 되어 아들딸의 꿈이 된다. 아버지와 약속은 그 아들딸들의 길이 되고 꿈이 되고 삶이 된다.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자녀에게 없다.



5월 가정의 달,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소개

Courageous,

"신앙심 깊은 아버지, 남편, 남자"

"Courageous"는 2002년 조지아 주 알바니아의 서우드침 레교회에서 설립한 기독교 영화제작사 서우드 픽처스의 네 번째 작품인 "Courageous"는 1백만 달러가량의 초 저예산으로 제작되었다. 알렉스 캔드릭과 스테판 캔드릭 형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알렉스 캔드릭이 연출을 맡았으며, 신인 러스티 마틴, 벤 데이비스, 켄 베벨 등이 출연했다.



"Courageous"는 지역사회를 지키고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애쓰는 네 명의 웨리프들의 이

지역사회 섬기며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 애쓰는 4명의 웨리프 이야기

유머, 액션, 감동 제공...

"신앙심 깊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 깔려있어

야기이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의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다. 즉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딸이 음주 운전자에 의해 사고로 죽게 된다.

그때부터 네 남자는 신앙심 깊은 남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로 결심한다. 이 영화는 남자 관객들의 마음을 끌고 눈물짓게 만든다고 감상자들은 말했다.

작년 10월 1일 개봉 이후, 이 영화를 본 많은 이들은 감상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오랜만에 본 최고의 영화이다. 멋진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에게 감사한다." "놀랐다, 그저 놀랐다. 성실한 아버지를 가지지 못한 모든 아이들을 위해 눈물 흘렸다. 내 아버지는 착실하신 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대물림하지 않았다. 착실한 아버지 혹은 엄마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안다."

영화 "Courageous"의 제작자들은 아버지 부재의 사회를 비난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냉담하고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자녀와 아내 보기에 올라가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행동을 하기 위해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아버지와 남편과 남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띄운다. 제작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영향을 주고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영화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이 영화는 드라마, 유머, 액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공하며 밀박닥에는 신앙심 깊은 아버지가 되라는 남자들을 향한 도전이 깔려 있다.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 전문인 선교회

PGM

중·장기선교사 훈련

- 일시: : 2012년 7월 9일(월)~21일(토)
- 장소: 멕시코 칸쿤 GMA 세광국제선교센터
- 대상: 장기 선교사 후보생, 비거주 선교사 후보생, 선교사로 재훈련을 원하시는 분
- 강사: 양춘길목사, 정인수목사, 호성기목사 외 미주 한인교회 지도자 김종관선교사, 이규종선교사, 조길순선교사 외 장기 선교사
- 접수마감: 2012년 6월 16일(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함께 동참할
선교의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 타문화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교 공동체 훈련을 실시합니다. PGM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훈련비: \$300/개인 (항공료 자부담)
\$500/부부 (항공료 자부담)

훈련내용: 선교훈련 전문가가 선교지 내에서 실시하는 On-site 훈련으로 교육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

Spiritual Formation of Missionaries
Survival Skills, Individual Intercultural Adjustment
Cross Cultural Tools for Missionary Work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ies
Evangelism Practice
Fundraising Skills & Financial Reports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PGM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admin@pgmusa.org
전화: (610)397-0484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성적표이다. 나이와 인종과 학위와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준다. 만약에 각 나라별 종교성에 대한 성적표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약 반세기 전에 세계가 뒤집히는 논란에 휩싸였다. 타임 매거진은 1966년 4월 8일지에서 "Is God Dead? 신은 죽었는가?"라는 특집을 냈다. 타임 매거진은 3년후 1969년 12월 26일자에 새로운 질문을 한다. "Is God Coming Back to Life? 신이 다시 살아나는가?"라는 특집을 냈다. 이런 질문은 그 후

개가 된다. 그들이 사용한 질문은 8개로, 1)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2)나는 신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3)나는 개인적인 신은 믿지 않지만, 초월적인 능력의 존재가 있음을 믿는다. 4)나는 때때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안 믿을 때도 있다. 5)나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신을 믿는다고 느낀다. 6)나는 신이 정말로 존재함을 알고 또한 아무런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7)선택할 수 없다. 8)무응답으로 구분을 했다.

폴란드 출신의 교황인 요한 바오르 2세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열정적인 포교활동 때문일 것이다.

신앙심이 세월의 흐름 즉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했는가?

시카고 대학 NORC팀은 각 나라를 시간에 따른 신앙의 변화도 조사를 했다. 무신론자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2.3% 이상 증가한 나라는 30개국 중에서 23개국이었다. 신을 개인적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2.0% 이상 떨어진 나라도 30개국에서 20개국이었다. 세 가지 구분에서 모두 지속적인 신앙의 감소를 보이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동독, 네델란드 등이었다. NORC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대부분의 나라에게 약화된다. 하지만 감소를 특별히 매해 단위로 계산해보면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했다.

또한 모든 구분에서 신앙이 증가되는 나라도, 즉 무신론자들이 감소되고 개인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증가한 나라는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이었다. 슬로베니아는 거의 가톨릭이다. 러시아의 변

의 트렌드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 포함된 나라는 오직 30개국이고 주로 유럽 중심의 나라들이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 인도, 중동, 남미,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빠져 있다. 또한 세계의 종교성의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비록 제한되기는 하지만 참여한 나라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보고서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것은 소위 개혁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지역의 신앙의 감소인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강한 무신론의 대표주자들이 되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하여도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던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유주의는 세계의 교회를 급속하게 약화시켰다. 물론 서독이 아닌 동독지역이 무신론의 선두주자인 것은 자유화 이전의 공산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루터교가

세계의 나라별 종교성 성적표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에 오랜 세월을 두고 수많은 종교학자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불러 일으켰다.

지금까지 세계의 종교성의 변화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했다. Kay(1997)이나 Voas(2009) 등이 대표하는 일반적인 세속화 견해는 교육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종교성이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Norris와 Inglehart 이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발전은 '실존적인 불안정 existential insecurity'를 감소시키기에 종교의 필요나 요구가 감소된다고 했다. Smith(2009)는 종교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구조화된 종교는 감소하나 영성은 증가한다"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다양하다.

바로 지난 4월 16일 시카고 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의 종교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종교적인 나라로 발표를 했다. 이 조사는 시카고 대학의 NORC(North Opinion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Beliefs About God Across Time And Countries" 여론조사 프로젝트이었다. 이 보고서를 낸 Tom Smith은 이 보고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시간과 나라와 연령층에 걸쳐서 신앙을 조사한 것이라 했다. 조사에 참여한 나라의 숫자는 30여

조사의 결과를 보면 신앙심이 나라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무신론은 독일 특별히 동독지역에서는 52%나 증가했는데, 필리핀에서는 무신론이 1% 감소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84%),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고(4%), 동독은 2등으로 8%이었다. 강한 믿음 미국(60%)은 5번째이다. 상위권의 나라들은 이스라엘(65%), 폴란드(62%), 칠레(79%), 필리핀(83%) 등이었다. 또한 가장 무신론을 따르는 나라 사람들은 동독 52%, 체코 39%, 프랑스 23%, 스웨덴 19%, 덴마크 17%, 노르웨이 17%. 이들 나라 사람들 중에서 신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동독 7%, 스웨덴 10%, 체코 11%, 덴마크 13%, 노르웨이 17%, 영국 17% 역시 낮았다. 동독에 비해서 서독은 무신론은 10% 강한 신앙은 26%를 성적했다.

주로 이전의 무신론이 높은 나라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들이고, 신에 대한 강한 신앙을 가진 나라들은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였다. 특별히 폴란드의 가톨릭은 세속화를 이기고 가장 신앙적인 나라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필자의 해석에 의하면 그 이유는

하는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브치움의 조사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신앙인 수가 지난 16년 동안 14%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예배소를 찾는 신앙인이 1996년 57%에서 2012년에 71%로 늘어났다. 러시아 인구의 75%는 정교회에 소속된다. 이스라엘의 종교성의 증가는 기독교로 개종 의미는 아니다. 정통 유대인과 우익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나이에 따른 신앙의 변화는 어떠한가?

공통적으로 30개국 중에서 29개국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신앙도 증가함을 보였다. 그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그룹은 58-67세와 68세 이상이였다. 이것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점점 더 알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결론짓기를 신앙의 감소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지되었지만 그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특별히 감소의 폭을 매해의 변화로 계산할 때에 그 감소는 매우 작은 폭이다. 아직도 신앙은 높은 편이지만 다른 보고들과 같이 1950년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물론 이 보고서가 세계의 종교성

국교인 서독인들 중에서 확실한 신앙은 26%이었다. 물론 이 숫자가 결코 작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한국의 복음화율을 계산해볼 때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보고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칼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보고서의 타이틀을 하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사문 궁금해진다.

대체적으로 강한 신앙을 보인 나라들은 가톨릭이 강한 나라들이었다. 가톨릭은 다른 신앙과 사조를 포함시키는 포용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그들의 높은 성적의 의미를 재평가해야한다. 개혁주의나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듭남(born-again) 혹은 성경적 확신과 같다고 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사실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 성적표는 시카고 대학의 보고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시고 주시는 성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매기시는 성적은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성적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나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과연 떳떳하게 가슴을 펼 수 있을까? 아니면 쥐구멍을 찾아야 할까?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한국에서 공연한 세계적인 팝 스타인 "레이디 가가"(Lady Gaga)의 퍼포먼스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과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를 어떻게 비판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한국교회가 미국의 팝가수 레이디 가가의 동성애 유희와 무대에서의 과감한 성 묘사 연출을 이유로 그의 내한공연을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팠든 가는 곳마다 술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레이디 가가의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한국공연에 45,000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니다.

기괴하고 독특한 퍼포먼스와 유별난 의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온 레이디 가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중문화의 일반적인 속성들을 간과한 채로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소비와 상술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의 마케팅 전략중 하나가 바로 종교적인 요소들을 일상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소비하도록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이고 기괴한 것을 찾는 것이라며 예술적인 차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말합니다. 더불어 레이디 가가의 특이한 의상과 과격적인 퍼포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과격적이고 신선해 찬성"이 26.7%, "과한 면은 있으나 이해할 수 있다"가 34%,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의견은 24.6%,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대"가 14.6%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악마적 퍼포먼스에 속지 말아야

그러나 저는 기독교의 복음전파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는 "반 기독교적 악마주의 퍼포먼스인 것"이라고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배후에는 반드시 어두움의 세력이 그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디 가가는 평소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기사로 공연하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성경적이며 기독교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단체로 구성된 레이디 가가 공연반대 페이스북 그룹도 지난 21일에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를 보고 자국민은 16살의 소년 캠벨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으며 오를라호 마에 사는 20살의 여성 안젤리나 반츠는 레이디 가가를 흉내를 내 자신이 카우던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 피를 뒤집어서 경찰에 붙잡혔다며 레이디 가가의 한국내 공연을 비판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공연은 공연 중에 성행위를 묘사한다든지 유희이 남자인 자살퍼포먼스를 하기에 "따라하기"를 잘하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회 회장 김승동 목사는 지난 23일 '레이디가가의 한국공연과 문제점'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레이디 가가는 공연 중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인을 조소하는가 하면 관객들을 향해 함께 지옥으로 가자고 권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독교 시민단체는 레이디 가가 공연반대 성명을 내면서 "연예인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대중들의 습성을 생각할 때 레이디 가가 같은 스타가 절대로 이 사회의 문화를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본교 소개 및 특전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석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을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선교학 석사학위 전과목 온라인 강의
5.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여름학기 본교강의안내

May 21-May 25 (5월 21 - 5월25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PM 826 Current Theology Issues (현대신학동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rk Soto, Professor

May 28-May 31 (5월 28 - 5월 31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 (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PM 853 Strengthening Spiritual Vitality (영성강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Professor

졸업식안내

일시: 2012년 5월 19일(토) 오전 9시
장소: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생을 위한 총장 만찬

일시: 2012년 5월 18일(금) 12:00-1:30pm
장소: Westminster Hall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선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례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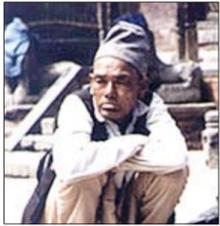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학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S),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o@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탄의 네팔인(NEPALESE)



1950년대 네팔 건국의 시기에 다수의 네팔인들이 네팔에서 도주했다. 그들의 생활양식에 국가의 요구와 압력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인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이 외국가인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

탄으로도 이주했다. 최근에는 부탄으로 이주하는 것을 저지당하고 있는데, 부탄의 남쪽 농경 지역에서 지내며 인권 침해와 "민족 말살"정책에 대해 부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네팔인들은 인도 근처 지역을 근거로 부탄 국가의회라고 불리우는 반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부탄은 면적이 미국 인디애나주와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매우 작은 국가이다. 네팔인들은 네팔어인 카스쿠라(Khas Kura)어를 사용한다. 다른 힌두교도들과 마찬가지로 네팔인들도 "카스트" 제도에 속하

여 살아간다. 이들의 카스트 제도에는 상위 지주 계층과 하위 하인 계층, 두 계층만 있다.

삶의 모습

부탄에 사는 대부분의 네팔인들은 농부들로 일부 극도의 빈곤층들은 소유지가 없다. 기름진 쌀은 물론기후 동안 자라고 그밖에 마른쌀, 옥수수, 기장과 밀은 여름과 겨울에 건조한 땅에서 자란다. 마당에는 야채를 재배한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소와 염소를 키우고 우유를 공급받기 위해 소를 키운다.

그들의 마음은 농경지 주위에 들성등성 무리 지어 있으며 대개 강이나 하천과 가까이 있고 집들은 좁은 골목으로 연결돼 있다. 때때로 이 길에 있는 큰 나무 주위는 여행자들의 쉼 곳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회의하는 곳으로도

사용되곤 한다. 또한 중요한 사원과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는 큰 도시도 여럿 있다.

집은 보통 양철이나 짚으로 엮은 지붕과 진흙 벽돌로 짓는다. 집의 바닥 부분은 붉은 점토로 바르고 지붕에서 절반 이상은 하얀색이며 대개 2층 또는 그 이상이다. 부엌과 거실 등이 위층에 있는 곳도 있는데 이는 집 잃은 짐승들이 집으로 들어와 돌아다니며 더럽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집들은 현관과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을 짜는 등의 공동작업을 한다.

네팔인 아이들은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모유를 먹는 등 잘 살피진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밥을 먹거나 처음 머리를 자르는데도 몇 가지 통과해야 하는 의례가 있다. 8살이 되면 아이들은 집에서 잠업을 하는데 여자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에게 먹이를 주거나 물을 나르고, 남자 아이들은 가족을 다룬다. 전형적으로 여성은 들일을 한다. 땅을 갈고 심으며, 잡초를 뽑고 농작물을 거둔다. 또한 벼의 낱알을 고르고 말린다. 남자들은 재기질을 포함해 테라스를 수리하고 농작물에 물을 대는 일을 한다.

마을 축제나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동안에는 여성들은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무거운 은으로 된 코걸이와 귀걸이를 하며 화려한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다.

신앙

사실상 부탄에 있는 네팔인 거의 다 힌두교도이며 수백만의 신들을 예배한다. 그들은 신들이 부분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형상들은 "브라만"이라고 불리는 온 우주의 신의 한 파트라고

믿는다. 가장 중요한 신은 온 우주의 창조자인 브라만이고 비시누는 보호자, 시바는 파괴신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들은 인간은 브라만의 실제하는 한 부분이라는 힌두 사상을 믿는다.

힌두인은 3백만 이상의 신들을 예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른 초월적인 존재들도 예배받지만 남신과 여신들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긴다. 힌두인들은 영혼과 귀신, 악령과 요정들이 살아 있으며 정기적으로 제물을 드리며 그들을 달래는 제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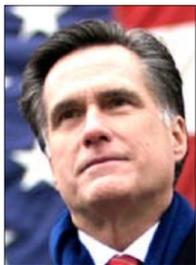
필요로 하는 것들

네팔인들은 거지된 믿음으로 억압돼 있다. 참 구원의 주 예수님께로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많은 중보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복음주의 진영, '물론교' 롬니 1위에 밀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왔던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롬니에게 빠져들었다. 그동안 세를 몰아왔던 릭 샌토럼 상원의원이 낙마한데 이어 리트 킵그리치 전 하원의장마저 지난 2일 하차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제 코드가 맞는 주자는 론 폴 하원의원 뿐이지만 그가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올 대선구도는 사실상 오바마 현 대통령과 롬니의 대결로 압축된 상태다.



롬니를 공화당 대선주자로 내세워야 할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롬니가 독실한 몰몬교도이기 때문이다.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몰몬교를 '기독교의 이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종교로 보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롬니가 오바마를 이기기 위해선 미국 전체 유권자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가톨릭 신자와 함께 유권자의 22%로 추산되는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을 끌어들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가톨릭 쪽은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몰몬교에 대해 심하게 배타적이지는 않다. 정치적으로도 선거 때마다 이쪽저쪽을 오가며 표를 찍는 이른바 'swing group'이다.

그러나 개신교 복음주의 그룹은 다르다. 이들은 몰몬교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을 뿐더러 정치적 움직임도 강하다. 롬니는 이런 복음주의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성애와 낙태반대 등 복음주의자들이 반길 내용들을 신념으로 강조해왔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나의 종교나 집단을 위해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경제정책도 예수의 말씀에 따라 기초한다"는 등의 말도 해왔다.

이 진영의 대결이 될 것인 만큼 종교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란 주장을 펴기도 한다. 또 경제회복 문제가 최대이슈여서 종교적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 내 여러 여론조사전문기관들은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오바마와 롬니의 대결로 진행될 대선을 앞두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CNN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17%가 "물론교 후보들에게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2004년 대선에서 부시대통령에게 물표를 줬던 이번 대선에서 롬니에게 물표를 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물론교도에게 표를 주느니 차라리 진보계열이지만 같은 개신교도인 오바마에게 투표할 복음주의 유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보수적 가치를 지지해온 복음주의자들이 선불리 민주당에 표를 주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래저래 11월 본선 때까지 복음주의자들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 내 구호단체들 스파이로 의심받아

1년 전 미군 특수부대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은신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이후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구호단체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연합뉴스 인터넷 판이 뉴욕발로 보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빈 라덴의 소재를 추적하는데 이곳 작은 마을에서 일하던 의사 한 명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사는 파키스탄 당국에 끌려가 구호단체 '세이프 더 칠드런'을 통해 CIA 요원을 소개받았다고 자백하는 바람에 지역 내 여러 구호단체들이 당국으로부터 심한 감시를 받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사킬 아프리디(48)라는 이 의사는 작년 미군의 작전이 있는 지 며칠 뒤부터 파키스탄 당국에

의해 억류돼 있다.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는 이 의사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빈 라덴 추적에 도움을 준 의사가 영웅이며 보호받아야 할 인물이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개인적으로 그의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파키스탄 군부는 의사를 반역자로 보고 있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자기네 영토에서 미군이 허락받지 않은 작전을 펼친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역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 의사는 처형당할 가능성도 있다. 파키스탄 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던 단체들에도 불용이 튀었다. '세이프 더 칠드런'의 타격이 가장 심하다.

파키스탄 정부와 서방 구호단체들에 따르면 아프리디는 파키스탄 군 정보국인 ISI 조사관들에게 '세이프 더 칠드런'이 자신을 CIA에 소개했다고 털어놓았다. 세이프 더 칠드런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필적 뒤었다. 수사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받은 이 의사가 관련없는 단체를 희생양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작년에 1억5000만 달러를 지출하며 파키스탄 내 취약계층 여성 및 어린이 700만명을 지원했지만 요즘은 당국으로부터 엄격하게 감시를 받고 있다. 단체의 지도부는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고 다른 직원들은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구호품물도 세관에 억류돼 약 3만5천명의 유아가 3개월간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보당국이 직원들의 전화도 엿듣는다. 다른 구호단체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파키스탄 당국은 구호단체 직원들이 스파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구호단체 직원들이 민감한 현안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정보요원으로 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한다.

세이프 더 칠드런의 파키스탄 현장 매니저인 데이비드 라이트는 "CIA가 이 문제에 답을 해주고 당국의 탄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 롬니 대변인 사퇴 놓고 '시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대선 캠프 국가안보 담당 대변인으로 영입됐던 리처드 그레넬이 채 3주도 안돼 낙마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 유력언론은

지난 2일 롬니 선거대책위 국가안보담당 대변인으로 내정된 그레넬이 동성애자 시비와 관련해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롬니 캠프가 그레넬(45)을 영입할 때만 해도 상당한 역량이 기대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권에서 유엔주재 미 대표부 대변인 등으로 근무하면서 보여준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다. 유머가 풍부한 그를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정책 고위관계자 몇 명이 강력히 추천했다. 특히 리처드 윌리엄슨, 존 볼턴 전 대사의 역할이 컸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다.

그러나 미국가족협회(AFA) 등 반 동성애 보수단체들이 동성애 결혼에 대한 그레넬의 지지 발언 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롬니 지지를 표명했던 보수단체 일각에서조차 "전통 결혼 수호에 대한 몰몬교리도 따르지 않는 몰몬교인이려면, 어떻게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며 롬니를 몰아붙였다. 평소 롬니 후보에 비판적이던 브라이언 피셔 미 가족협회 이사는 지난달 20일 "롬니가 동성애자 대변인을 임명한 것은 전통적 가족 지지 사회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레넬이 트위터에 올렸던 독설이 구설에 올랐다. 독설은 대부분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뉴트 김리치 전 하원의장,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 대사, 할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향한 독설로 그레넬이 공식 업무도 보기 전에 논란에 휘말리자 캠프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많은 동료들이 복잡하게 전개될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롬니의 정책담당 선임보좌관인 알렉스 옴은 지난달 26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 있는 그레넬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몇몇 동성애 지도자들은 "그레넬이 게이라고 해서 막가파식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면 롬니 캠프의 대선 가도가 결코 길조만은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황 의 영 목사 | (SBM 대표)

말씀을 동사화(動詞化)하라(1)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Take Words with you and return to the Lord!)”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일깨우고 있다. 이 주제는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SBM의 3대 목표와 결부된다. 그래서 나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섰다.

특별히 장영준 목사님께서 앞 시간에 본문을 자세히 소개해주셨다. 주제와 관련하여 핵심을 강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강의를 위해 준비한 내용이 많다. 짧은 시간에 잘 소화하여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란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당시 예로보암이 22년 간(왕상14:20)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북왕국을 중심으로 약 반세기

여 무질서할 수밖에 없었다.

2)호세아라는 뜻은 “Salvation”이다.

님의 명을 받들어 고백이라는 방탕하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쓰러진 마음의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했다. 배신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깨운 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득하며 생명의 말씀을 외쳤다.

4)호세아가 선포한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상황은 호세아가 활동하던 혼란한 때와 매우 흡사하다. 호세아가 결론적으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인 까닭이다.

2. 처방으로 제시된 이 말씀을 깊이 깨닫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이르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

우리 한국교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오고 있다.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특강을 끊임없이 듣는다. 말씀의 흥수를 이루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3. 말씀을 대한 우리의 모순점을 발견하자

말씀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된다. 왜 그럴까?

1)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을 올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을 읽고 제목을 밝혔으면 본문의 배경(factor)을 연구하고 계사적인 깊은 의미(meaning)를 찾고 반드시 적용(apply)하도록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의 설교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다.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올바르게 못하다. 말씀만 전한다면 차라리 비범함이나 잠탕방이면 괜찮겠다.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난 세상적인 예화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설교를 망치

율범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롬3:6-9)고 강조하였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떠나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내버린 그 통치권 주하고 내새 나는 배설물들을 설교시간에 자랑하며 인용하는 사례가 많다. 여러 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직 복음만 바로 전하자.

3)성경적 가치관보다 물질이 더 강조되고 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데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이 실종되고 있다. 그 까닭은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요소들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세속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모세의 경우를 보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3-26)고 성경은 교훈하신다. 그런데 모세가 단호히 거절한 세속적인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가 택한 값진 가치관을 소홀히 여긴다.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복음의 본질 떠난 설교...본문 증거도 틀려 말씀을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적용하지 못해

에 걸쳐 활약하였다.

1)예로보암은 하나님을 거역한 왕이다.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지었다.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또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왕상12:31, 32).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영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사회는 부패하고 혼란하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였다. 그 가운데 그들의 죄악을 경책하며 다시 사랑으로 감싸고 구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었고 있다.

3)호세아의 가정생활은 매우 불행하였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나라”(호1:2)는 하나

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호14:1, 2)라고 외쳤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너는 모든 불의를 회개하라

2)너는 먼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하라

3)너는 네 길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동사화하라”는 제목 아래 함께 상고하고자 한다. 근래

고 있다.

2)설교 가운데 버려야 할 배설물이 많이 섞여 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신의 신앙적 소신이 매우 강했다. 그는 참으로 자랑거리가 많았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다. 젊은 때부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당대에 촉망 받는 영적 지도자였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평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나성영림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대 예배: 오후 3:30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경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시 목회 기도회: 오전 6:45(월-토) 찬양대 예배: 오후 3:30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5:45(월-토)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원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효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목 예배: 오전 7:30 금 목 예배: 저녁 8:00	등문교회 담임목사: 최재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디아스포라선교회 디아스포라 선교사 센터 담임목사: 권영자 목사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섬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 목회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3:30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목 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목 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전 5:30(월-토)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재범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15 주일 4부: 오후 7:45 목회예배: 오전 5:30(월-토)	방주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월-토) 주일 2부예배: 오전 9:30(월-토)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월-토) 주일 4부예배: 오후 7:30(월-토) 목회예배: 오전 5:30(월-토)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원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수 목 예배: 오전 7:30 목회예배: 오후 3:30	빈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권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 목 예배: 오후 7:30(월-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2: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성경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후 5:30(월-토)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전 5:30(월-토)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목 예배: 오후 7:30(월-토)	새창교회 담임목사: 경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목 예배: 오전 7:30 목회예배: 오후 7:30	인디우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월-토)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전 8:00 수 목 예배: 오전 7:30 목회예배: 오후 11:30	일반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함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목 예배: 오후 7:30(월-토)	오렌지카운티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목회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후 11:30 목회예배: 오후 7:30(월-토)	오성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7:3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월-토)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월-토) 주일 4부예배: 오후 7:30(월-토) 목회예배: 오후 8:00(월-토) 목회예배: 오후 7:30(월-토)
온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5:30(월-토)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진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후 8:00(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심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 목 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전 8:00(월-토)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월-토) 목회예배: 오후 4:3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7:30	코네티컷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7:30(월-토)	로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후 8:00(월-토) 목회예배: 오후 8:0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L.A.: Tel: (323)685-0019 Fax: (323)685-0048 N.Y.: Tel: (718)928-4000 Fax: (718)928-0074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87. 성경의 궁금증들(8) - 첫 번째 창조물이 빛?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실은 한 사람의 가치가 광대한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들어내게 된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관한 이유와 목적도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란 존재에 비하면 이 무수한 별들은 지구에 빛을 비추는 별 가치가 없는 장식물들일 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heaven and the earth)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바른 답을 못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 번역본들에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또 다음 절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현재형을 사용해서 그 동사의 의미들이

을 분석해보면 그 동사들은 시의 언어가 아니라 역사를 기술하고 있음이 99.9% 확실하다. 동사 시제의 잘못된 번역 외에도, 오래된 지구 나이를 받아들이는 결과는 단어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2절의 “형체가 없는”(foamless)을 “혼돈”(chaos)이란 단어로, 그냥 “비어 있는”(void)을 “공허”(emptiness)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 이 역시 오래된 지구의 영향을 받은 타협된 창조이론(간격이론)의 영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혼돈과 공허는 각각 어지럽게 된 것과 있던 것이 없어져버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체가 없고 비어 있는 것은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중립적인 의미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를 말하고 있는 제목이나 선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고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된 물질이 지구가 아니라 빛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영어 번역본들은 분명한 단순 과거(created)로 되어 있어 하늘(heaven)과 지구(the earth)의 창조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지구가 먼저 창조되었어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로 시작되는 2절의

관한 이유와 목적도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란 존재에 비하면 이 무수한 별들은 지구에 빛을 비추는 별 가치가 없는 장식물들일 뿐이다. “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말씀만 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글자만 알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더 이상 잘 표현하실 수 없게 써 두셨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문장을 수백 번 읽으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히 버리는 것일까? 오래된 지구의 나이와 진화론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그 영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성경을 자의로 해석해야 되었고 성경은 정확 무오한 책에서 오류가 많은 책으로 여기게 되고 말았다. 성경 밖에서 반 성경적인 사상을 들여와 그것을 기독교의 기초에도 활용을 하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2010년 USA투데이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95%의 미국인들이 하나

첫 창조물이며 중심인 지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위해 창조돼 1700년대 상상으로 시작된 ‘오래된 지구설’ 현재도 여전히 존재



창조 제 1일 날의 창조물들

이 분명한 행동의 결과로 전달되지 않는다. 반면에, 빛을 창조할 때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라는 명령이 있고 “빛이 있었고”라는 확실한 표현이 있어 성경의 독자들이 지구 창조보다는 빛이 먼저 창조되었다고 혼동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시제를 이렇게 현재형으로 번역하게 된 것은 영어나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오래된 지구 나이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 결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믿음이 창세기 1장의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로 나타났을 것이다. 현재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창세기를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동사들

미 있게 연결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창조된 물질이 지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은 이 지구를 꾸며가는 과정이다. 이 관점에서 보아야 창조의 최종 목표인 사람의 중요성이 명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해가 된다. 창조의 중심축이 지구가 아니라면 지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많은 별들 틈에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라도 표현할 수 없이 작아지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게 존재 가치가 없는 미물이 된다. 그러나 창조의 중심이 지구며, 지구는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으므로(사45:18),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실은 한 사람의 가치가 광대한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들어내게 된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남을 믿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믿니?”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 “너 성경을 믿니?”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창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다. “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라는 질문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지만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을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내용 전부이다.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그 창조자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구원의 길을 흔하게 하는 소위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는 부흥이 오기를 바란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30)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외동아이를 위한 성품교육 (1)

외동아이를 둔 부모들은 혼자서 자라는 외동아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늘 노심조사하게 됩니다. 외동아이를 ‘원만한 관계를 맺는 좋은 성품의 지도자’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부모가 가르치는 성품 양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외동아이를 둔 부모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외동아이를 위해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형제나 많은 아이들이 비해서 외동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보호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지요. 적절한 부모의 관심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성취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외동아이가 학업적 성취나 동기유발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갖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러나 외동아이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또래 관계 형성을 통한 배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외동아들은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 판단 능력이나 독립성이 부족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동아이를 어떻게 좋은 성품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1) 배려의 성품을 가르치세요. 외동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또래와 함께 물건을 나누거나 부모의 사랑을 나누어 보는 것이지요. 집중된 사랑을 받는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기적인 성품의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동아에게는 ‘배려’의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지를 큰 관심을 갖고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외동아 부모들은 때때로 ‘우리 아이가 형제가 없어서 누구와 싸우는 일이 좀처럼 없었는데 유치원에 가서 또래와 어울리면서 자주 싸우고 와요’라고 고민을 털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외동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배우도록 부모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2) 또래와 관계 맺어주기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만들어 주세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배려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외동아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지요. 함께 어울릴 시간이 많아져 배려의 성품을 배우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서로의 집이나 혹은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서 자게도 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 생각을 나누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게 하는 경험들을 갖게 하세요.

3) 절제의 성품을 일깨워 주세요. 맛벌이 부모들에게 외동아이가 있는 경우 비교적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보니 평소 아이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물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 혼자인 아이가 안쓰러워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적으로 수용해 주다보니 자기 욕심대로 제멋대로인 성품이 눈에 띄어 고민하기도 합니다. 원만한 선물이나 물질은 주어도 고마운 줄 몰라 부모를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부모도 지나친 사랑은 절제해서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절제의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불편함을 인내하는 경험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보는 경험들 마음대로 인내도 화내지 않고 절제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0:30 수일/기도: 오후 8:00 세례/기도: 주일 8:00 수일/기도: 오후 11:00 Tel: (704) 441-0821, Fax: (704) 441-1825 www.chpress.org 2619 Melrose Rd., Charlotte, NC 28217	맨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7:00 Tel: (919) 422-6636, Fax: (919) 422-6643 7760 Kingsley Dr., Arden, NC 28705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1:00 수일/기도: 오후 8:00 세례/기도: 주일 8:00 수일/기도: 오후 8:00 Tel: (919) 222-6991, Fax: (919) 222-7777 www.chpress.org 3260 Morris Ave., Lenoir, VA 24646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부제: 오전 8:00(한국어) 주일/찬양: 오전 10:30(영어) 수일/찬양: 오전 11:30(영어) 수일/기도: 오후 8:00 세례/기도: 주일 8:00 Tel: (252) 449-1922, Fax: (252) 449-2662 1550 Woodrow Ave., Lenoir, VA 24647	멜빌교회 담임목사: 전용배 주일/부제: 오전 7:3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기도: 오후 8:00 세례/기도: 주일 8:00 수일/기도: 오후 8:00(한국어) Tel: (410) 439-1222, Fax: (410) 439-2823 2965 St. Anne Lane, Elkton,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대영 주일/부제: 오전 11:00 주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기도: 오후 8:00 세례/기도: 주일 11:00 수일/기도: 오후 8:00 Tel: (508) 425-4278, Fax: (508) 425-2487 2 Main St., Popponesset, MA 01948	폴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기도: 오후 8:00 Tel: (410) 337-8444, Fax: (410) 337-8444 1520 Seminary Ave., Hunt, MD 21083
삼포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찬양: 오전 10:45 수일/찬양: 오후 8:00 수일/기도: 오후 8:30 수일/찬양: 오전 11:00 수일/기도: 오후 11:00 Tel: (704) 329-6905 / (984) 663-3889 701 Scarborough Road, Charlotte, NC 2825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종호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찬양: 오전 10:00(한국어)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기도: 오후 7:00 Tel: (305) 425-2917 6007 Pacific Ave., Ft. O. Blvd 8358 Lacey, WA 98503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부제: 오전 10:00 주일/찬양: 오전 11:15 수일/찬양: 오후 7:30 수일/기도: 오후 8:00(한국어) 세례/기도: 주일 8:00 Tel: (206) 231-0281, Fax: (206) 231-1749 4600 N. 105th St., Seattle, WA 98122 www.kpcc.org	알라바마 재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부제: 오전 11:30 주일/찬양: 오후 4:00 수일/찬양: 오후 7:30 수일/기도: 오후 8:00 세례/기도: 주일 8:00(한국어) Tel: (205) 870-8048, Fax: (205) 425-5179 805 Kirby St., Little Rock, AR 72211 www.arcc.org	앵커리지델타교회 담임목사: 유재업 주일/부제: 오전 10:30 주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기도: 오후 7:00 Tel: (907) 344-6445, Fax: (907) 344-3187 8320 Inwood Rd., Anch, AK 99518	앨파스델타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부제: 오전 8:00(한국어)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후 7:30 Tel: (252) 337-5480, Fax: (252) 337-4288 3418 Arise Ave., Ft. Pierce, FL 3494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권 주일/부제: 오전 7:30 주일/찬양: 오전 8:30 수일/찬양: 오전 12:00 수일/찬양: 오후 7:30 수일/찬양: 오후 8:00 수일/기도: 오후 8:00(한국어) Tel: (713) 542-0288, Fax: (713) 542-6027 710 Wheeler Ave., Houston, TX 77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부제: 오전 11:00 주일/찬양: 오전 7:30 수일/찬양: 오후 8:00 Tel: (254) 334-6705, (254) 331-2823 428 N. 8th St., Abilene, TX 7960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1:00(한국어) 수일/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 주일 8:00 수일/찬양: 오후 8:00(한국어) www.wsc.org Tel: (703) 947-4447, Fax: (703) 947-4448 4913 Matthews St., Alexandria, VA 223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후 8:30 수일/찬양: 오후 8:00 수일/찬양: 오후 8:00(한국어) Tel: (804) 278-7000, Fax: (804) 278-7554 10201 Robison St., Richmond, VA 2322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후 8:30 수일/찬양: 오후 8:00 수일/찬양: 오후 8:00(한국어) www.lessewvaskn21.org www.lessewvaskn21.org Tel: (410) 209-0516, Fax: (410) 202-2523 3264 Corporate Center Blvd., Elkton,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후 7:30 수일/찬양: 오후 8:00(한국어) Tel: (253) 969-6198 7461 E. Verde St., Tacoma, WA 98406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형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후 8:00(한국어) Tel: (253) 325-8217, (253) 321-8424 www.kmshbc.org 8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후 7:30 수일/찬양: 오후 7:00 수일/찬양: 오후 8:00(한국어) Tel: (253) 530-8875, Fax: (253) 530-4815 8424 E. Yakima Ave., Tacoma, WA 98444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찬양: 오전 11:00(한국어) 수일/찬양: 오전 10:3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후 8:00(한국어) 세례/기도: 주일 8:00(한국어) 수일/찬양: 오후 8:00(한국어) www.chpress.org Tel: (480) 778-2115, Fax: (480) 767-2827 1920 E. Desert Ave., Chandler, AZ 85226	하트포트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후 7:45 수일/찬양: 오후 7:45 세례/기도: 주일 8:00(한국어) 수일/찬양: 오후 8:00(한국어) Tel: (860) 449-4730, Fax: (860) 449-6665 35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후 7:00 수일/찬양: 오후 8:00(한국어) Tel: (808) 733-0911 153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5	에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후 7:00 수일/찬양: 오후 8:00(한국어) Tel: (808) 729-7004, Cell: (808) 218-4282 1063 3th Ave., Honolulu, HI 96815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부제: 오전 11:0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1:30 수일/찬양: 오후 7:30 수일/찬양: 오후 7:00(한국어) Tel: (808) 377-2536, 867-7778, 842-2822 1367 E. Doletoa St., Hual, HI 9681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찬양: 오전 11:00 수일/찬양: 오전 11:30(한국어) 수일/찬양: 오후 7:00 수일/찬양: 오후 7:00 수일/찬양: 오후 8:00 Tel: (808) 947-2322, Fax: (808) 947-6187 www.khbc.org 2122 Malakoi St., Honolulu, HI 96822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새 총회장 이광희 목사

제31차 정기총회, 부총회장도 뉴욕에서... 김명옥 목사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제31차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 소재한 콜롬버스뉴비전교회(담임 이원철 목사)에서 개최돼 새 총회장 이광희 목사(할렐루야뉴욕순복음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새 총회장에 선출된 이광희 목사는 "34년 동안 교단 시작부터 섬겼는데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며 △분리된 제2총회와의 통합추진 △영성수련회의 회복 △한국교단과의 협력 등을 사회 계획으로 내놓았다.

이 목사는 분리된 동서를 하나로 묶는 작업과 2년 전부터 끊어진 영성수련회를 올 9월말 폴란드에서 재개하게 된다며 수련회를 마치고 유럽의 종교개혁 발상지들을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미전역의 교

단 교회들을 순회하며 지역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이광희 목사는 한국의 순복음 3개 교단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교류 및 협력을 위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창세기 13장 14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총회에는 총 311명의 회원 교역자 중 120명의 총대와 사모 40여명이 참석해 31주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첫날 개회예배 설교는 증경 총회장 김남수 목사(뉴욕프라이미스교회 담임)가 "예수님의 관심"(행1:6-8)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이어진 목사



이광희 목사



김명옥 목사

안수식에서는 김현석, 안원준, 유상용, 이수홍, 이학용, 임준옥, 한승훈 등 총 7명의 신임 목사가 세워졌다. 둘째날에는 성찬예배가 있는 후회회에 들어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후 교단을 이끌어 나아가 갈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이광희 목사(할렐루야뉴욕순복음교회) △부총회장 김명

옥 목사(뉴욕예은교회) △분부총회 총대 이창언 목사(투산 사과나무교회) △7개 지방회 지방회장: 동북부/김영철 목사, 동중부/이주남 목사, 동남부/정재성 목사, 중북부/이원철 목사, 중남부/김신길 목사, 서북부/천우석 목사, 서남부/지용웅 목사. 총무 김영재는 목사 유임됐다.

저녁 집회는 김명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증경 총회장)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본문으로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셋째 날에는 조찬기도회를 마친 후 총회와 중북부지방회의 후원으로 창조박물관, 아미시 타운 관광 등 일일관광을 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 집회는 차갑선 목사(한국 시흥순복음교회)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본문으로 "새 출발"이란 말씀을 전했다. 다시 한 번 소명을 확인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미주특별연회 총무 이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감 미주특별연회 신임 최광철 총무

총무 이취임 감사예배, 설교 이후근 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감독 이후근 목사) 총무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일 오후 6시30분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에서 열렸다. 박상훈 목사(시편교회)의 찬양인도와 박찬길 감리사(서북부지방)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임영호 감리사(오렌지 지방)가 대표기도를, 조갑성 장로가 성경봉독을, 동산해남남성교회가 특송을 불렀다.

이어 이후근 감독이 '들보와 티' (눅6:39-4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눈에 들보가 있는 자와 티가 있는 자의 공통점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다. 들보가 있는 자가 티가 있는 자를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티가 있는 자가 들보가 있는 자에게

도 비판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이취임 선언과 이임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홍석민 이임 총무의 이임사와 최광철 취임 총무의 취임사, 취임패 증정, 조현영 목사(큰빛교회)의 축사, 민병영 목사(모슬린한인교회원로목사)의 권면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한기형 감독의 축도로 마쳤다.

총무로 취임하는 최광철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BA와 M.Div를 공부했으며 중부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교동교회, 청학교회, 원주제일교회에서 시무했으며 하와이 감람연합감리교회와 푸른진주교회를 담임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성결대학교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미주성결대학교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는 5일 사우스베이선교회에서 제3대 이사장 이상복 목사 이임과 제4대 이사장 조종곤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다.

류종길 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 예배는 부총회장 차광일 목사의 기도에서 이어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성결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신실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류종길 총장이 이임하는 이상복 이사장에게 ABHE 준회원 자격 획득과 학교 건물 구입에 큰 공

헌한 것을 기리는 공로패와 함께 기념 반지를 전달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 이사장의 이임사가 있었다.

이어서 이기홍 사우스베이선교회 원로 목사의 격려사, 신임 조종곤 이사장의 취임사, 이경근 명예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신임 이사장 이상복 목사, 이종길 목사, 피터 홍 목사, 최대영 장로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경삼 오렌지중양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미주성결대학교)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임원들.

하나님사랑 전하는 목사회로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월례회, 20일 회장 이취임식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이하 여성목사회) 월례회가 한우리장로교회(담임 강지원 목사)에서 지난달 30일 정오에 열

렸다. 월례회는 백지영 회장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설교는 강지원 목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23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25개 교회와 1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23회 사랑의 마당축제 성황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23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 워터 네로우 레크리에이션 에어리어에서 사랑의 마당축제 조직위원회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마당축제는 빌리지 크리스천 스쿨의 드럼라인팀과 선한청지기교회의 워십댄스, 고수희 무용단의 사물놀이와 부채춤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으며 22개 부스가 설치되고 닭고기, 김밥, 떡볶이, 등 음식을 제공했다.

도로 시작된 이날 1부 예배는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담임)가 '같이 울고 같이 웃자'(롬12:15)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축도 선형정 목사(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전제 순서의 마침기도는 이사무엘 목사(나성영락교회)가 했다.

이번 사랑의 마당축제는 가주남교회, 감사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남가주말알선교단, APAC, ARS 등 25개 교회와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박준호 기자)

여성목사회는 매월 세미나와 부흥성회를 통해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 커뮤니티에 형편이 어려워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 천국환송예배를 치루는 등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회로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오는 20일(주) 오후 5시 S.L.임마누엘 선교회(담임목사)에서 남가주 한인여성목사회 제3대

열방의 부흥을 위한 제5회 다민족 콘서트

5월27일 오후6시 북가주 오크 팍 크리스천센터

모든 민족의 화합과 연합으로 미국내 30개 민족의 다민족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열방의 부흥을 추구하는 연합의 장이 펼쳐지는 제 5회 글로벌 다민족콘서트가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연합회(대표:정윤명 목사/월넛크릭GIM교회 담임) 주최로 5월 27일(주) 오후 6시 북가주 콘트라코스타지역의 플래젠첼에 위치한 Oak Park Christian Center(담임 Bill Mathews 목사)에서 열린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67:3)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미국주류 대형 교회인 Jubilee Christian Center, Abundant Life Christian Fellowship, Oak Park Christian Center, Bethel Baptist church, Calvary Temple Church, 이스트베이지역의 Afro-A merican church 연합과이어를 포함한 러시아, 라틴아메리카(브라질, 멕시코, 칠레, 쿠바, 온두라스), 피시픽 아일랜드(하와이, 괌, 피지, 사모아, 통가) 중국, 일본, 타이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뉴욕권사할장단, 북가주지역연합 워십댄스)과 함께 미국 주류교회 연합찬양팀이 참가하게 되며, 옵저버로 필리핀, 인도,

이란, 아프리카 등의 많은 민족들이 화려한 고유의 의상을 입고 참가해 여러 민족 교회들의 연합과 화합의 장을 갖게 된다.

특히 뉴욕권사할장단은 콘서트에 앞서 25일에는 콘트라코스타인안장로교회(담임 전성호 목사)에서 금요 찬양제와 27일(주) 새누리침례교회(담임 손경일 목사)에서 특별찬양도 갖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925)639-9527/(925),988-9191 paulchung0214@yahoo.com로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회장: 백지영, 부회장: 배순례, 지사: 김문자, 총무: 김영화, 부총무: 박소피아, 서기: 강지원, 재무: 황그레이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이코스 세미나 성료

미니스트리 디렉(MD, 대표 김진기 목사)이 주최한 오이코스 컨퍼런스가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15만명의 전체 도시 인구 중 100명에서 12,000명으로 성장시킨 하이테크교회(담임 탐 머서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 나선 탐 머서 목사는 "우리의 삶은 영적전쟁이며 우리는 영적 군사이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믿음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어떤 전략

을 짜서 사탄을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에서 목적과 전략,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교회는 목적이 아니고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속한 교회이다. 주님의 피로써 주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태는 세리였고, 죄인이었

다. 그들이 오이코스였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한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얻을 말씀이라고 한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공약을 전제하셨다. 집으로 가신 것이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의도적으로 하게끔 도와주면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오이코스도 돌려보내는 목적은 그가 만난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의 필름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정희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사제기도회: 오후 8:00(주, 목) 오후 8:30(화, 금)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사제기도회: 오후 8:00 영성대제례: 오후 8:45	
뉴욕셋째마녀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사제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후 8:45	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후 8: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사제기도회: 오전 8:30	뉴욕순복음안다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전 8: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사제기도회: 오후 8:30(화, 목)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전 8:30 사제기도회: 오전 8:45(화, 목)	뉴욕주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후 8:00(화, 목)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환 1부일부예배: 오전 7:15 2부일부예배: 오전 8:30 3부일부예배: 오전 10:15 4부일부예배: 오전 12:00 5부일부예배: 오후 1:30 6부일부예배: 오후 7:30 7부일부예배: 오후 8:30 사제기도회: 새벽 8:00(화, 목)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박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화, 목) 금요일예배: 오후 8:00(화, 목) 사제기도회: 오후 8:00(화, 목)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희영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전 8:45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전 8:30 사제기도회: 오전 8:30	메디나교회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전 8:30 사제기도회: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후 8:00(화, 목)	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8:30 목요일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전 8:30 사제기도회: 오후 8:00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1부 기도예배(요양): 오전 8:30 2부 예배(요양):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0:45 4부 예배: 오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후 8:0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근 주일예배: 오전 12:30 목요일예배: 오후 6: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후 1:3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2:30 목요일예배: 오후 2:30	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미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사제기도회: 오전 8:30(화, 목)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L.A.: Tel: (310)995-0009 E-mail: ccs@ccsnews.com N.Y.: Tel: (718)896-4600 Fax: (718)896-0074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남미지역 담임목사: 박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4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박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종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45	브라질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7:30	아르헨티나 제임교회 담임목사: 최광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주일2부예배: 오후 12:3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사제기도회: 오전 8:30(화, 목)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원근 목사 목회지원: 임원근 목회 목회지원: 임원근 목회 목회지원: 임원근 목회 목회지원: 임원근 목회 목회지원: 임원근 목회	

동부교계 기사판



2012년 여름 SAT 강좌안내

뉴욕청소년센터(AYCNY) 2012년 여름SAT 강좌가 7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6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 Critical Reading, Writing, Math 강의가 이어진다. 등록비는 1,350달러로 신청마감은 6월 20일. 강의진행 중 토요일 1회 국제도시선교회와 공동으로 맨해튼에서 다민족 전도를 해야 한다. 또 매주 금요일 봉사할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수료증도 받고 월-목 강좌전체를 50%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문의: (718) 570-3881

'히브리어 입문' 여름특강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 부설 성경원어연구원이 '히브리어 입문' 여름특강을 실시한다. 일정은 6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강사는 오명환 교수(뉴올리언즈침례신학교, 구약전공 Ph.D). 수강료는 300달러, 숙식비 380달러. 5월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참가신청 이메일은 mhoh@midwest.edu

▲문의: (636)327-4645, (317)363-6317

1.5세 유스 찬양의 밤

뉴욕 아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1.5세(한어권) 유스 찬양의 밤이 오는 18일(금) 오후 8시에 열린다. 주제는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으로 강사는 아모스신. 행사 후에 친교시간도 있다.

▲문의: (516) 349-5559

담임목사 청빙

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616 Prospect Ave, West Orange, NJ 07052)에서 담임 목사를 정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M.Div)를 졸업하고 미주 목회(부목사 포함) 3년 이상, 체류 신분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 소개서, 목회비전, 학위, 목사안수(장로교) 증명서, 최근 설교 CD 또는 동영상 2회분.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는 사모도 포함되며 최근 가족사진도 제출해야 한다. 마감은 6월 15일.

▲문의: (917)592-4143 조현호 청빙위원장

뉴욕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지휘 이정진)이 창단 16주년을 맞아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초기 한국선교사의 마을에 있는 빌리그래함 센터(블랙마운틴, NC)에 한국선교 기념비 후원을 위한 이번 연주회는 뉴욕권사선교합창단과 뉴욕 로이엇 청소년 오케스트라, 바리톤 박요한, 조애실 소프라노 등이 찬조출연 한다. 일시와 장소는 6월 10일(주) 오후 6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

▲문의: (917)841-7552

미주보수교회연합회 5월 21일 창립 예배

창립 앞두고 세미나... 9월초 미주대회 계획

뉴욕에서 추진 중인 미주보수교회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이달 21일(월) 창립예배를 앞두고 지난 7일 오전 임마누엘교회(담임 장시문 목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설립추진위원회는 위원장 김명옥 목사, 부위원장 김용의 목사, 총무 박진하 목사, 서기 김진화 목사, 회계 이준성 목사로 조직을 구성하고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동 연합회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는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사이비 이단,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WCC를 배격하고 보수 정통신학과 신앙을 바탕



미주보수교회연합회 설립추진위원회가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으로 하여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립목적도 밝혔다.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올해 1월부터 매주 월요일예배를 시작했으며, 2월에는 회칙안 상정 및 분과위 조

직, 3월 필라 밀레니엄극장 방문 및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4월 회칙안 5차 최종수정안 통과 및 구원제 선교사 초청 세미나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5월과 6월에는 WCC 관련 세미나를 열며, 9월초 미주대

회 및 세계대회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의 목사는 인사를 통해 "세계중심이 뉴욕이다. 뉴욕에서 햇빛을 받으면 전세계로 번져나갈 것이다. 우리는 진리수호를 위해 땀을 흘려 나가고 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마귀단체 WCC 비판"이라는 주제로 김이호 목사가 강의했다. 김 목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장 역사사진을 공개하며 1959년 합동과 통합의 분열과정을 소개하고 WCC 때문에 교권주의자들이 패거리를 몰고 분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계를 망치는 WCC에 반대해 단결해서 보수신앙과 신학을 지키고, 온 세상이 WCC를 따른다해도 여러분만이라도 보수신앙을 지켜서 제 2의 종교개혁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원정 기자)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어버이날 행사

뉴욕병원선교회 13회 효도잔치



효도잔치를 주최한 김영환 목사(왼쪽앞)가 노인들을 안내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뉴욕일원의 한인교회와 교회들이 어린이날 행사와 효도잔치를 벌였다. 6일 주일에는 각 교회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8일 어버이날에는 대동연회에서 효도잔치가 열렸다.

뉴욕병원선교회(대표 김영환 목사)가 13회 째 개최하고 있는 효도잔치는 이번에도 350여명이 참석해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여흥 순서가 마련됐다. 김영환 목사는 "매년 어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뉴욕의 한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는 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통해 효의 본을 보이며, 또 본 행사의 주 목적이 노인들의 영혼구원에 있다"고 강조하고 기

도와 협력 등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예배는 김영환 목사 사회로 기도노기송 목사, 특별찬양 밀알선교합창단, 성경봉독 이준성 목사, 설교 이종식 목사, 초청시간, 축사 환경일 목사 한장연 한인회장, 환영사 김지나 한국요양원 원장, 특별인사 함승환 변호사, 축도 장시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2부에 출연한 팀들은 하나문화원, 광상희 시인, 제시유 색사 풍양상블, 프라미스교회 국악찬양팀, 정인국, 백향목선교단, 강여진 전도사 등으로 춤과 찬양, 시낭송을 통해 참석노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제시유 집사(맨 왼쪽)가 콘서트에서 뉴욕색소폰앙상블을 지휘하고 있다.

기독교인 문화 공간·2세 교육 공간

크리스천오픈센터기금마련제시유라이브콘서트

이민교회 성도들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크리스천 오픈센터' 마련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시유 라이브 콘서트가 개최됐다.

지난 5일 뉴욕새순교회(담임 석중훈 목사)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은 라이프라인미션 대표 유태웅 목사는 "뜻 깊은 오늘 행사를 통해 기독교인의 문화 공간, 친교 공간 나아가 2세들을 위한 열린 교육공간이 될 크리스천 오픈센터 설립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크리스천 오픈센터는 라이프라인미션 사역의 한 분야로, 이는 코리아

빌리지 내에 있었던 열린 문화공간이 중국인에게 경매로 넘어가면서 한인들이 각종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전무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제시유 집사는 영화 '미션'의 주제곡이었던 '넬라 판타지'로 첫 문을 열고 소프라노 색소폰, 테너 색소폰, 베이스 색소폰 등을 사용하면서 찬양과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장르를 넘나들며 열정적으로 연주했다.

또 테너 김영환 집사와 뉴욕색소폰앙상블이 우정 출연했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양로원 방문 무료 음악공연

양로원 노인들과 환자들을 위한 이노비의 무료 음악공연이 오는 17일(목) 오후 2시와 24일(목) 오후 2시 30분 뉴저지 은혜가든양로원과 맨해튼 드윗 너싱홈에서 각각 열린다.

이노비는 미국건강관리협회(American Health Care Association)에서 정한 내셔널 너싱홈 위크(National Nursing Home Week)인 5월 13-19일을 기념, 두 곳의 요양원을 방문해 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된 노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연을 실시한다. 두 번의 음악회에는 뉴욕 일원에서 활동 중인 전문 음악인들이 참여해 가곡과 클래식, 유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노비 강대욱 대표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평소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이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께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위로와 치유의 시간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리 : 유원정 기자)

오른손구제센터 2호 미션 홈 추진

오른손구제센터(대표 안승백 목사)가 2호 미션 홈 마련에 동참자를 찾고 있다.

대표 안승백 목사(뉴욕유한교회 담임)는 "현재의 시설로는 더 많은 분들을 수용하기 어려워 다시 2호 미션 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며, "5-6명 규모의 미션 홈 하나 운영에 대략 월1500달러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밝히고 "1개 미션 홈에서 5-6명 정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현재 1호 미션 홈에서 싱글맘과 자녀1명, 한인부부 1쌍이 입주해 있으며 동 센터는 이러한 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며 후원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연락처: (646)233-8770 홈페이지 <http://www.nyhumble.org>



사진은 작년 12월 24일, 드윗 너싱홈을 방문한 이노비의 무료 음악회 공연 모습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해외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온 총회 산하 교회와 총대 여러분 배후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 34회 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해 주심 바랍니다.

- 주 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 43:19)
- 일 시: 주후 2012년 5월 28일(월) 오후 4시 - 30일(수) 12:00 까지
- 장 소: 주 예수 사랑 교회(강유남 목사 시무)
1155 Hendricks Cswy Ridgefield NJ 07657
(551)655-4224, (201)982-2520

- 등 록: 회원은 개회 전까지
- 회 비: \$100.00(부부동반시 \$150.00) 숙식: 총회에서 제공함

- 관 광: 총회 후 뉴욕 명소 관광 있음
- 숙 소: Marriot Hotel (1-800-992-7752)
100 Frank W. Burr Boulevard Teaneck, NJ 07666

- 유의사항
- 가. Ticketing 하실 때, New Wark Airport(New Jersey) 로 하시면 시간이 절약 됩니다.
- 나. 항공편명, 출발시간, 도착 시간을 예약 후 바로 전화주시면 안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전화: (551)655-4224 (개인보다 그룹으로)

주후 2012년 4월

- 비상 대책위원장: 정익수 목사
- 서 기: 강유남 목사
- 준 비 위 원 장: 이선일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해외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36-23 164 St Flushing NY 11358 | Tel.(718)445-0362, (551)655-4224

'One Nation, Under God' 주제로 LA교계 제61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기도회

제61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기도회가 지난 3일 저녁 7시30분 올림피아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열렸다. LA지역 목회자와 성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One Nation, Under God'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남가주주목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LA 성서화운동본부, 자마(JAMA)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제61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신과 미국의 죄에 대한 회개, 교회와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 성경적 가정의 회복과 공립학교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각급 학교 교사들의 영적 회복 및 미디어의 복음화 등에 대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김영대 목사는 인사말에서 "우리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변영의 목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예4:14-17)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많았는데 살기 좋은 오늘날엔 애국자들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빠질 때 애국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여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나라 사랑해서이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창립26주년 선교부흥회에서 김명환 선교사가 설교하고 있다.

샌디에고반석장로교회 설립26주년 선교부흥회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담임 최동진 목사)는 설립 26주년을 맞아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하에 4월 27일(금)부터 29일(주)까지 선교부흥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교부흥회와 선교세미나는 소록도 나환자촌에 들어가 10년을 사역하고 필리핀 나환자촌에 가서 현재까지 8년째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선교사역을 친히 감당하고 있는 김명환 선교사(필리핀)가 인도했다.

최동진 목사는 "2012년 1월부터 매 주일 선포되는 마태복음 말씀 강

한다"고 말했다.

강순영 목사(자마 부대표/올림픽장로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의 날 행사는 김영대 남가주목사회 회장의 인사말, 허귀암 남가주목사회 총무가 성경봉독, 미주복음방송 선교합창단이 특별찬양을 했으며 변영의 목사가 설교를 했다.

이어 전두승 목사(시티하베스트교회),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서요한 목사(은혜와진리교회),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송정명 목사(미기총 대표회장/미주평안교회), 정시우 목사(미국방위군 군종감), 정영희 목사(월서연합감리교회), 강루이 목사(뉴호프채플 LA), 정장수 목사(올림피아장로교회), 박남수 장로(장로협의회 부회장/나성교회) 등이 차례로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변영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양현승 목사의 저서 '파워봉사' 출판사은의 밤에서 사인회를 갖고있는 양현승 목사.

양현승 목사의 '파워봉사' 출판 사은의 밤

양현승 목사의 저서 '파워봉사' 출판 사은의 밤이 지난달 30일 저녁 JJ 그랜드호텔 로열 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박세현 목사(남가주교회 총무)의 사회와 김기대 목사(평화의교회 담임)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사은의 밤은 정찬임 아나운서(라디오서울)가 이화 시인이 양 목사에게 보낸 축하시를 낭독했으며 송정명 목사(미기총 대표회장)와 양운성 교무(미주종교평화협의회 상임대표)가 축사를 했다.

송정명 목사는 "30년간 이민목회하며 이민자를 섬겨왔으며 양현승 목사를 만나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귀하게 생각한다. 양 목사는 종파를 초월해서 섬겨온 분이고 이민현장에 뛰어들어 이민자를 헌신적으로 섬겨온 분이다. 이 모습은 이민 2세와 3세들에게 자부심 심어주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롤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주종교평화협의회 상임대표 양운성 교무는 "양 목사는 인생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주신하고 쟁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일을 가장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이다. 그의 열정과 젊은 생각 등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주류 사회 세계 모든 곳곳에 경륜이 힘을 발휘해 많은 곳에 큰일 할 수 있기를 응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이 출판된 아침향기의 대표 강신익 목사의 출판소감이 있으며 양 목사의 중고등학교 11년 후배인 안병만 씨와 소설가 최유혜 씨의 독후감 발표, 에드워드구 상공회의회장, 조명환 크리스트워클리 발행인, 김인수 유학센터 소장, 문인귀 시인 등 이날 참석한 양 목사의 지인들의 소감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이선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해를 통해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명해보면서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십자가까지 낮은 곳을 찾는 것이며 그곳에서 바로 섬기는 것임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성회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섬김의 제자도를 선교 공동체로 구현해내는 김 선교사의 간증은 실로 귀한 도전과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소망으로 다가온 귀한 감동의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베델교회 채류석 장로임직예배

미주베델교회(담임 정요한 목사)는 지난달 15일 채류석 장로 임직예배를 드렸다.

임직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요한 목사 사회로 시작돼 기도 배기문 전도사, 특송 전재학 목사, 설교 최은종 목사(뉴욕코너스톤교회 담임)로 진행됐으며 영구서 목사의 축사,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이상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말씀을 전한 최은종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골2:1-11)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삶이 가장 아

름다우며, 장로는 섬기는 일에 앞장설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직 받은 채 장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에 앞장 서 정치기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장교 출신으로 최근에 한국 공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바 있는 채 장로는 현재 한인 타운에서 쇼설 위커로 New Pro Messenger Service 대표로 일하고 있다.

(기사제공: 미주베델교회)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미션 페스티벌

오레곤 주 소재 벨엘장로교회(담임 이돈하 목사)는 미션페스티벌을 16일(수)부터 19일(주)까지 개최한다. 오레곤 지역의 선교 관심자, 율여름 단기선교 준비자를 대상으로 갖는 이번 페스티벌의 일정은 16일 저녁 7시30분(강사 김홍진 선교사), 17일 저녁 7시30분(강사 홍순혁 선교사), 18일 저녁 7시30분과 19일 오전 8시30분(강사 홍순혁 선교사), 19일 오전 10시30분(강사 김홍진 선교사), 19일 새벽 6시와 저녁 7시(강사 이충식 선교사) 등이다.

▲문의: (503)649-3990

부목사 청빙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는 본 교회 목회팀에서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목사 또는 파트타임 인턴 목사 및 청년교회 파트타임 목회자 약간 명을 청빙한다. 자격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이중언어가 가능한 자이며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iv 이상 신학훈련을 받은 목회소명의 확신과 비전이 분명한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 1장), 자기소개서, 최근설교 동영상이나 설교파일 1편이며 서류마감일은 5월 19일(토)이다.

▲문의: (949)854-4010

가정의 달 세미나

미주한국인심리학회(회장 리차드슨 박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정세미나를 19일(토)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라는 주제로 파사데나장로교회(담임 성현경 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213)234-8268

미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강도사 고시

미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신태환 목사)는 2012년 제18회 강도사 고시를 6월 4일(월) 오전 8시30분부터 12시까지 성암장로교회(405 Wilshire Bl #410, LA, CA)에서 갖는다. 시험과목은 논문, 성경주해, 설교, 조직신학, 교회정치, 교회사, 면접 등이다.

▲문의: (510)912-1955

겨우살이 약초 차 출시기념 효도잔치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욱 목사) 부설로 운영되는 소망동산(Hope Herb Center)에서 겨우살이 약초 차 출시기념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선교적 차원으로 5월 13일(주) 오전11시 예배를 마친 후 60세 이상 남, 여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잔치를 펼친다. 이날 겨우살이 약초의 제품 설명 및 복용방법과 효능에 대해 설명과 함께 약초티백 시음회 및 약초 차를 증정한다.

▲문의: (213)380-0258, 500-7013



사진 설명: 앞줄 우측에서 셋째 채류석 장로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새끼 새끼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 문화장학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usa@reformeduniv.org
TEL: (714)796-8830 FAX: (714)796-8834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영을 영답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례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를 수록 신청서

교회 기록교 기관, 기록교원본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5-17 Franklin Ave. #206
Rushing, NY 11355
Tel:(718)686-4400 Fax:(718)6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66
E-mail: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목주소	_____
⑥ 사목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_____@_____
⑧ Web Add.	http://_____
⑨ 소속교단(장학이계)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면요 □ 빈칸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벽달 / 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스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ce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록교 및 학생

372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282-4584 Fax: 213-282-4584 Email: wordoflifebooks@gmail.com
www.lifebook.co.kr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5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독교문화와 문예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교회학교 감소는 교회 존립의 위기..대안 모색해야 “명문대 강요하는 크리스천 부모부터 바뀌어야”

[CBS]어린이 날을 앞두고 교회학교 현실에 대해 진단을 해보고 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교회학교를 살릴 방안은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나이 어릴수록 감소 폭 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주일학교의 감소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유아부는 21% 정도가, 초등부는 18%정도, 중고등부는 1.3%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감소폭이 크다는 것이다.

“성공해라” 강요..기독교 부모가 치관 달라져야

그렇다면 교회학교를 살릴 방안은 무엇일까? 교회교육 전문가들은 우선, 크리스천 부모들의 변화를 위해 교회가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명문대를 나와 성공하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교회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교회가 매력을 잃으면서 어린 자

녀를 둔 30~40대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난 것도 교회학교 감소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학교 교사, 인생의 멘토 되어야

전문가들은 특히,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성경 지식 전달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삶과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 된다면 아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헌신된 교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회, 교회교육에 예산 확대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또, 교회학교 교육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회 안 어린이의 비율은 30%정도인데 이들을 위한 예산은 3~5%정도에 불과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예장고신총회 교육국 안동철 국장은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일학교 예산을 10%이상 확보해야 그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인의 80%가 18세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통계를 고려할 때 교회학생의 감소는 한국교회 존립 자체의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 교회의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성경공부 6개월간 1만5000명 수료” 신천지 운영 온오프라인 신문 천지일보 보도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이 지난 6개월간 신천지 성경공부를 수료한 사람이 1만5000명이 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 이단으로 포교 대상자가 대부분 기존 교회 출신이다.

신천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온·오프라인 신문 ‘천지일보’는 최근 “신천지(총회장 이만희)가 지난달 말 1609명의 신천지 성경공부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반년 만에

약 1만50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해냈다”면서 “바야흐로 신천지의 시대가 왔고 이전 종교 세계가 부흥을 알리는 확실한 증거”라고 보도했다.

비록 신천지의 자체 발표라 할지라도 지난 1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와 신천지대적전국연합이 공개한 자료와 비교할 때 과대포장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 이들 단체가 신천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는 2009년 성도수가 5

만8000명에서 2010년 7만120명, 2011년 8만5500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천지 성경공부 수강자만 1만4700명이었다. 1년 만에 달성한 수료생 수를 반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구리상담소장은 “신천지가 지난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복음방이라는 곳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한 사람만 7200명이었어. 이번 수료자까지 합치면 2만명이 신천지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신 소장은 “신천지의 교육은 2개월짜리 복음방 교육을 거친 다음 6

개월 코스의 지역별 센터로 넘어 간다”면서 “피해자를 포함해 2명이 강사 1인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게 전형적 구조인데 외부에서 비밀리에 성경공부를 한다면 신천지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장인 진용식(안산 상록교회) 목사는 “신천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이단회를 이단회의 구원자로 신봉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반예수교 사교집단으로 유사 기독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국내 성서보급 절반 감소 34만 5천9부...해외 성서 수출은 최고 실적

[CBS]올 상반기(2011년 11월~2012년 4월 말) 국내에 보급된 성서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성서공회는 7일 서울 서초동 성서공회 4층 세미나실에서 제117회 정기 이사회를 열어 “올 상반기 국내 보급된 성서 부수는 34만 5천 19부로 전년도 같은 기간 73만 5천 829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서 보급 감소에 대해 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이사회 보

고를 통해 “성경 찬송가 합본의 보급이 주류를 이루는 현실 속에서, 찬송가의 저작권 문제로 찬송가를 제작할 수 없게 된 것이 성경 보급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폰 보급 확대 등 매체가 급격하게 디지털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인쇄 성경의 수요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98년 출간된 개역개정판 성경은 국내 강단용 성경으로 자리잡으

면서 꾸준히 보급이 늘어 현재까지 국내 출판사들이 출판한 주석까지 포함해 약 1천 5백만 부의 개역개정판 성경이 보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국내 성경 보급은 줄었으나 해외 성서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서공회는 “올 상반기 89개 나라에 131개 언어로 모두 292만 7천 525부의 해외 성서를 제작해 보급했다”면서 “이는 지난해보다 338,358부, 13.1% 늘어난 것으로, 특히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성서 수출이 전년보다 220,026부가 증가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112,781부가 증가해, 해외 성서 수출을 시작

한 이래 올 상반기에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해외에 성서를 제작해 기증하는 물량도 점차 늘고 있다. 성서공회는 세계 성서운동을 돕기 위해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에 해마다 백만 불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올해도 아프리카의 세네갈을 비롯한 9개 나라, 남미의 페루를 비롯한 3개 나라, 그리고 중동의 터키와 아시아의 필리핀, 총 14개 성서공회에 104,270부(미화 36만불)의 성서를 제작하여 기증해 오고 있다.

한편, 성서공회 이사장에는 김현배 목사, 부이사장에 김동권 목사, 서기에 이선국 목사, 회계에 손인웅 목사가 각각 선임됐다.

CBS 이재천 사장, 이사회서 만장일치 연임 결정



[CBS]재단법인 CBS는 CBS 차기 사장에 현 이재천 사장을 확정했다. CBS 단법인 재는 4일 의결권을 가진 재적이사 17명 중 출장 3명을 제외한 14명이 의결에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재천 후보를 3년 임기의 차기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서 사장후보로 나섰던 권오성 전 NCKC 총무는 재단이사회에 사장후보 사퇴의사를 밝혀왔음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재천 사장을 만장일치로 차기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재천 사장은 “연임이 확정됐지만 어깨가 매우 무겁다”면서 “CBS

구성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CBS,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CBS,한국사회가 자랑하는 CBS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천 사장은 이어 “국내의 경제가 어렵고, 광고시장도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가는 등 미디어 산업계 전반이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CBS 구성원들과 한국교회와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임된 이재천 사

장의 임기는 오는 6월 5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이재천 사장은 2009년 6월부터 지난 3년간 CBS를 이끌면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는 한편 방송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 TV, 신문 등 모든 플랫폼에 CBS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 미디어 정책에서 성과를 거뒀으며, CBS와 한국 교회의 관계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반도에 성령의 불·통일 물꼬 여는 기도전쟁”

예장 합동 100년 기념 ‘기도한국’ 발대식

[미션라이프]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이 4일 총회설립100주년 기념 ‘기도한국’ 발대식을 갖고 전국적인 기도운동에 돌입했다. 기도한국은 2008년 시작된 교단차원의 대규모 기도운동으로 특별새벽기도회와 노회별 대회 등으로 전국적인 기도 불을 일으킨 바 있다.

전국 139개 노회장과 서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이기창 총회장은 영적 전쟁, 씨름의 개념으로 기도회를 치밀하게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은 “기도는 무기와 전략, 군사가 동원되는 전쟁이자 1대 1로 싸우는 씨름과 같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연습이 없으며, 그 자체로 본 게임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도한국 대회는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기에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면서 “대회가 미스바 성회, 사도행전의 환상이 되어 성령의 불이 한반도에 떨어지고 통

일의 물꼬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기도한국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강석(용인 새에덴교회) 목사도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을 회복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면서 “올해 기도한국 대회는 총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대회인 만큼 교회사랑, 교단사랑, 하나님 사랑을 위한 축복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총회, 기도국회의 성공적 개최, 500만 전도운동과 2만 교회 설립을 위해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예장 합동은 7월까지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등 지역별 기도한국 대회를 개최한다. 또 8월까지 노회별 기도회를 개최한 후 8월20~26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본 대회는 8월26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예장합동 총회 100주년 신학정체성 포럼 “보수원칙 아래 포용과 섬김 전문·순수의 리더십 갖춰야”

[미션라이프]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이 총회설립100주년 기념 신학정체성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1세기의 신학을 재검토하고 교단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3일 경기도 용인 총신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예장 합동이 보수주의 신앙이라는 명분한 원칙이라 포용성과 섬김으로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북한교회의 지도력 양성, 총회 제도 정비, 전문성·순수성을 지닌 리더십 구성, 세계교회와의 연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즉 예장 합동이 1세기 역사성을 기반으로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날 김길성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는 “한국장로교회는 미국선교사의 영향으로 초창기부터 보수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교단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을 받게 되고 박영룡 박사 등 신앙선배들이 보수신앙을 지키며 대항교단으로 성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교단이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 정통 칼뱅주의, 청교도 장로교신학의 터 위에 서 새 시대를 개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단의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교회 연합운동에서 겸손하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장고신 창립 60주년 대회준비 박차 개척교회설립·교육홈피 ‘그랜드스토리’ 개설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정근두 목사)가 교단 설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척교회 설립 등 의미있는 행사로 치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신총회는 60주년 기념대회 전체 6억원 예산 가운데 3억원 이상을 개척교회 설립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으며,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 돕기에도 각각 5천만원씩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기념교회 개척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6월 14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교단 설립 6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인 등 만여명이 참여해 헌혈과 장기기증 운동에 참여한다. 또 고신 교단 설립 60년의 역사를 담은 60주년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 총회교육원이 총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인터넷 교육 홈페이지 ‘그랜드 스토리’(grandstory.co.kr)를 개설했다. 이곳에는 3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이 교재와 교사 지도서, 지도자 지침서 등 교재 37종과 사진·그림 2000여개가 들어 있어 교육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일학교 현장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목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영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영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명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기독교생활개혁신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성물 바른선교를 자랑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채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동북권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어플을 이용해서 어플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24시간 운영

New York Kom Tang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24시간 오픈

맨해튼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6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22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9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인터뷰 정태영 목사(광주 양림교회)

"말씀에 굳게 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1904년 12월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광주 양림교회(예장 합동 소속)에서 15년째 담임목회 중인 정태영 목사가 집회 차 뉴욕을 방문했다. 신학교(개혁 신학교 졸업)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전라도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정목사는 지방의 순수함이 물씬 풍기는, 그러나 촘촘하지 않은 넉넉함이 보이는 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상이었다.



광주 양림교회는 광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장자교회로 보수신학을 지향한다. 배유지(Bell) 목사와 오웬(Owen) 의사가 변장연 조사와 김윤수 성도 등과 함께 교회 시초를 마련했다. 그러다가 1918년부터는 이기풍 선교사가 한국인으로서 담임목사로 부임했으며 1923년에는 김창국 목사가 부임했다. 양림교회는 백년이 넘는 시간을 지

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죠. 전통적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을 합니다."

교인 수는 장년이 8백명, 주일학교는 유초등부터 중고등, 대학부 등 3백여 명 정도 된다. 주일학교의 감소는 한국내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림교회도 같은 양상을 보이

는 그대로 순종하며 교회건축을 위해 봉급을 봉헌하기도 했다.

개척이 아닌 기존교회에서만 청빙을 받는데 대해 "헌집 고치기"만 했다고 표현한 정목사는 더 어려운 점으로는 교회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기존 교인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 그러므로 적응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목회지 범성교회에서는 3년 6개월의 인내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내스타일대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너무 힘들어 다 버리고 섬애라도 같가 생각할 정도였다. 정목사는 청빙의 좋은 점은 '안정성'이라고 표현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실태를 보면서 정목사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이런 부정적인 문제는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목회자의 문제라며 목회자의 비거룩성은 전도의 문을 닫게 만든다고 안타까워했다. 교회 갱신을 위해서 정목사는 지역협의회(광주교단협의회, 교회갱신협의회 등)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정목사는 "

목회자 거룩성 강조, 지역 모교회로 책임감 남은 사역 선교에 열심 내며 마무리 잘하길

내며 광주사회에 영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총회 분파로 인해 두 번의 분열을 겪어 현재 같은 교회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지역 내에 3개가 됐다. 그러나 정목사가 부임한 후 세 교회는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찬양예배를 14회째 드리고 있으며 각 교회에서 장로를 5명씩 파송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또 장년부들도 위원회를 구성했다. 강단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장로 부부 친목대회도 개최한다.

"말씀에 굳게 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표어로 "예배회복", "주일학교 교육의 내실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말씀의 생활화"를 통해 이 시대의 초대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활동이 충만한 예배와 평신도 개발과 훈련자의 양육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라는 비전선언문과 더불어 정목사가 목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거룩성"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룩성은 절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고 있다고 정목사는 설명한다. 해결책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고 심플하게 설명한 정목사는 "절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창9:1)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선교에는 열심을 내 16개국에 선교사 30여 명을 후원하고 있으며 30여 미자립교회도 후원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도 협력선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목사는 "아주 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왜냐하면 양림교회는 지역의 모(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교회당을 건축해 임당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을 위해 헬스장도 오픈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역시 모태신앙이 많은 교인들이 가진 모 교회로서의 책임감 의식 때문이다.

정목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을 다니면서 풀링을 받고 때가 되면 신학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신인선 사모를 만났다. 신 사모와 결혼할 때 정목사는 자신이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을 다짐 받았다. 신 사모

은퇴가 10년 남았다"며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히 큰일을 계획하기보다는 교회당을 건축했으니 선교에 열심을 낼 생각"이라며, "은퇴를 앞두고 덕을 얻을 수가 없다. 목회는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인터뷰 내내 다소곳이 옆에 있던 신 사모에게 교회 내에서 특별한 사역이 있는가를 묻자 위낙 보수적인 교회라 사모가 하는 일은 없다며 "목사님 심방갈 때 함께 가는 정도"라고 말하고 기도제목을 내놨다. "목사님의 남은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진실한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정목사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옮기게 하신 것을 느꼈다"며, "이번에도 뉴욕 집회(원조장로교회)에 와서 느낀 점은 남은 목회사역을 점검하게 했었다.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간다. 잘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인선 사모와의 사이에 1녀2남이 있다. ▲이메일: CTY-53@hanmail.net (유원정 기자)

선교지 편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잠시 미국 방문을 다녀왔습니다(4월 9-19일). 미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틀란타에서 열린 4/14장 선교대회를 참가하였습니다.

요즘은 우리 마을에는 우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5월 중순에 시작하게 됩니다. 잡초를 태우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죠. 씨를 뿌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주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씨 안에는 소망이 있지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음이요. 오늘도 열심을 다해 씨를 뿌리네요. 비록 바짝 마른 땅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말입니다. 아직 보이는 것은 없지만 언젠가 성령의 비가 내린다면 이 땅에도 아름다운 소출이 있을 것을 믿으니까요.

매일 계속되는 새벽 Devotion 시간에는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마쳤네요. 매일 한 장씩 몇 명이 모여서 계속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은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바로 삶으로 그리는 복음의 장이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2:20)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3:27)"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4:19)를 아끼지 않는 삶이 바로 "삶으로 그리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속에는 성령의 열매(5:22)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6:17)으로 사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건축 산이시드로 세롬 교회 헌당 예배.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30분은 해가운데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휴스턴중앙장로교회 이재호 목사님, 선교위원장 강창호 장로님, 그리고 김준범 집사님께서 오셔서 축하해주셨습니다. 정지호 집사님께서 헌금해



주셨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성경책 구입을 위하여, 강대상과 의자를 헌물하신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30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애찬으로 친교를 하였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몽케카구아 교회 건축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LA 안디옥교회 원로 김상규 목사님과 권정숙 사모님, 뉴욕 선교교회(김명국 목사님), 상향중앙장로교회(권혁천 목사님) 교회에서 힘을 합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몽케카구아는 저희들이 지난 7년 동안 각 가정을 방문하며 사역한 곳입니다. 이제 창문과 출입문을 달고 페인트를 하면 완공이 됩니다. 산위에 세워진 성전을 통하여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복받은 마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San Pedro Sula 학교(Fuente de Luz 학교)사역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San Pedro Sula는 온두라스의 제2의 도시로, 산업도시입니다. 이곳에서 3시간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전문인선교사로 파송 받으신 장용혁 선교사님께서 지난 10년 전에 시작한 학교입니다. 장용혁 선교사님께서 선교지를 변경하시게 되어서 학교 사역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지난 3월 10-12일까지 사랑의 교회 선교목사님인 한정훈 목사님과 장용혁 선교사님과 함께 지나면서 학교의 장애 사역을 위하여 의논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305명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재정 자립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력 있는 신앙인이 많이 양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사역에 은사가 있으신 교회와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오행주간에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가족 단기사역으로 섬겨주셨네요. 고난주간에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가족 단기사역이 오셔서 부부세미나, 한방으로 선교 및 아이들 사역으로 섬겨주셨네요.

△부부 세미나
렌카 마을 첫 "부부세미나"가 4월 4일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알찬 강의 "성경적인 가정" "남편의 역할, 부인의 역할"로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네요. 처음이었지만 강의 가운데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강사로 Jose Luis 목사님, 강병은 집사님, 손정연 집사님, 통역으로 신영연 자매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 의료선교
한 의사인 이용원 집사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셨네요. 처음 한방진료라 걱정했는데, 차분하게 침 맞고 모두들 만족해하시네요.

효과가 좋으시다는 말씀에 이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14면으로 계속)

도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곳에는 Mercy 선교단체에서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Mercy에서 오지 교회 목회사 양육을 요청하셨습니다. 성경학교와 연계하여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겨자씨학교 사역(아자꾸알 파와 몽케카구아 지역)

4월 4-7일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섬겨주셨네요. 수도 테 구시갈파와 산페드로 솔라, 고마야구아에 있는 국립대학 학생들 30명이 와서 산골 동네를 섬겨주셨네요. 예수영화회, 가정방문을 통한 전도로, 아이들을 위한 특별 드라마 등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며, 지도자 Anulfo Matute, Jose Luis 목사님과 참석한 모든 학생께 감사드립니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가족 단기사역(부부세미나 및 한방의료선교)

고난주간에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가족 단기사역이 오셔서 부부세미나, 한방으로 선교 및 아이들 사역으로 섬겨주셨네요.



오행주간에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가족 단기사역으로 섬겨주셨네요. 고난주간에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가족 단기사역이 오셔서 부부세미나, 한방으로 선교 및 아이들 사역으로 섬겨주셨네요.

효과가 좋으시다는 말씀에 이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14면으로 계속)

Table with 4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announcement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service times. Includes churches like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란교회, 김포제일교회, 광주신일장로교회, 등성중앙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명성교회, 삼보교회, 새연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상일교회, 수영로교회, 수정교회, 승평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앙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장대교회, 정주주의교회, 충신교회.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피 라이프 (1)



고 강영우 박사(백악관정책차관보)의 부인 석은옥 여사의 저서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해피라이프"를 발췌해 게재한다. 전권은 다 실지 못하고 두 아들(백악관 선임법률고문 변호사, 워싱턴지역 최고의 안과 의사)의 자녀교육과 봉사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소망과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성장발달에 맞춘 신앙교육

나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신실한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자라날 수 있게 하려고 힘썼다. '신앙교육'이란 무작정 아이를 교회에 보내고 여러 활동을 시키는 것, 혹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입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교육도 그렇지만 신앙교육 또한 아이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만 열네살 전의 아이들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이들의 톨 모델이 되어주어야 한다. 가정에서 보고 듣고 배워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태도와 가치관은 배우는 것이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태도'는 행동에 반영되고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곧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다. 유대인이 크게 성공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는 자긍심 때문이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면 아이가 비행(非行)청소년이 될 확률도 낮아지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조사도 많다.

생전의 강영우 박사와 석은옥 여사.



나는 내 아이들이 신앙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이런 믿음으로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몸소 체험했다. 우리는 식사 때마다 기도했는데, 한 번은 세 살 난 진석이에게 "오늘은 네가 기도할 차례야"라고 했더니 뜻밖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앞을 보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진석이에게 남편의 시력이 매우 나빠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정도라면 이야기해두었는데 진석이는 아빠가 앞을 완전히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혼자 마음 아파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말해주었다.

"아빠는 원래 눈이 좋으셨는데, 열다섯 살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치셨단다. 그때 아빠는 골키퍼였는데 날아오던 공에 맞아 그만 실명을 하신 거야. 그런데 그 당시 안과 의사들이 치료를 잘못해서 눈을 고치기가 어려워졌어. 그러니 진석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른이 되어 아빠 눈을 고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야."

나는 그때 어린 진석이의 반응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두 눈을 반짝이면서 내 말을 들던 진석이는 영어로 말했다.

"I will do that. It's cool(내가 아빠 눈을 고쳐줄게요. 그게 정말 멋지겠네요.)"

그때부터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마음에 담고 진석이는 씩씩하게 자라났다. 아빠를 더욱 잘 돕고 돕직한 큰 아들의 모습으로.

엄마의 희망, 엄마의 기쁨으로부터

두 아들은 생김새와 성격, 재능과 취미 등이 모두 다르다. 하지만 세 살 터울로 적당해서 그랬는지, 진석이는 동생을 잘 데리고 놀았고 진영이는 형을 자기 영웅처럼 잘 따랐다. 무엇보다 진영이는 형이 하는 것은 뭐든 따라 하려고 했다. 심지어 형이 입던 낚은 옷도 좋다고 입고 다닌 덕분에 새 옷을 사줄 필요도 별로 없었다.

두 아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랐다. 진석이는 어린 시절부터 순발력이 필요한 스포츠에 재능을 보여 교내 야구, 농구 선수로 뽑혔던 반면 진영이는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진영이에게 줄넘기를 시켰는데 지구력이 강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낸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달리기

를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진영이는 나중에 그 지역 내의 네 개 학교를 대상으로 열린 달리기 시험에서 우승까지 했고 자신이 형보다 잘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진영이는 지역에서 열리는 26마일 마라톤에 종종 참가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아들에게 나는 각각 애칭을 달아주었다. 세 살 때 아버지처럼 앞을 못보는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말한 진석이는 '엄마의 희망(You're my hope)'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배려심과 인정이 많은 데다 학교 성적도 늘 우수했던 진영이는 '엄마의 기쁨(You're my joy)'으로 불렸다. 이런 애칭을 붙여 그것을 자주 불러주자 아이들은 정말 그 모습대로 자라나는 것만 같았다. 후일 성장해서 떨어져 지내며 편지로 안부를 전할 때에도 두 아들은 마지막에 항상 '엄마의 희망(You're my hope)'으로부터, '엄마의 기쁨(You're my joy)'으로부터'라고 써주어서 나를 참으로 기쁘게 했다. (다음호에 계속)

아르헨티나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2012년이 벌써 4분의1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2011년 디나목회신학원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일은 8년 전, 처음으로 3년 과정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산띠아고 델 에스페로 지역 목회자들 첫 그룹 15가정이 졸업한 후 2차 그룹 15가정 목회자 부부가 등록을 하여 작년 11월에 12회째 수강을 한 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말 감격스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지난 5년여 동안 기도하며 중보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북서지역이며 볼리비아와 국경인 살타(Salta)주 목회자 협의회 초청으로 작년 12월6일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이 어떻게 하면 살타주 목회자들을 협력할 수 있을지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번 느끼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지만, 살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목회에 부족함을 느끼고 목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기를 갈망하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이며, 특히 지방으로 나갈수록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필요를 의면한다면 아르헨티나의 복음화는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올해 고난주간은 특별한 주간이었습니다. 다만 아니라 역시 6년 전부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방문하고 전화로 메일로 연락하던 아르헨티나 토착민 인디언 토바족(Toba) 추장이며 목사요 또한 토바족 성경번역위원장인 라파엘 추장의 초청으로 차코와 포르모사 지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토바족과의 만남은 이미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 당시 로사리오라고 하는 백만 인구의 도시에 토바족이 이주를 해와서 그곳에서 지도자훈련을 할 때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초청으로 그들의 고향인 차코주를 방문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6년 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인하여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약 500년 전부터 자기들의 소유인 땅을 백인들에게 빼앗기고 자손 대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고, 이제 5세기가 지나가면서 자녀들의 정체성 문제와 잊혀져가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족의 멸종의 위기 앞에서 이중 문화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목회자들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분들을 섬기고 돕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위하여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2년 5월 1일 노동절 아침에... 박성흥-정명림 (신애-지애-원진) 선교사 드림



선교지 편

(13면에서 계속)

아틀란타 4/14 선교대회 참가

지난 4월 10-13일 4/14 선교대회를 참석했습니다. 파즈 목사님과 브랑카 사모님은 저와 지난 10년 동안 렌카 마을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3월 28일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첫 미국 방문으로 아틀란타 4/14 선교대회를 참석했네요. 산골마을에서 경사가 난 거지요. 이번 여행을 통하여 사역을 재 점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어린이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선교대회를 마치고 실로암교회(신유일 목사님)에서 극진한 대접과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책출판 준비

Terry Hall의 "Bible Panorama"(한국판 성경파노라마, 규장)를 출판하기 위하여 번역을 마쳤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인데 김영훈 형제(워싱턴열린문장교회)와 신영연 자매(온두라스 거주)님께서 수고 해주셨습니다. 번역 감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약 부분을 감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출

판이 되어서 많이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역 계획 및 준비

El Dia de Hombre(아버지 세미나) : 남자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5월 30일입니다. 강의는 "Hombre con la fe- Abraham"(믿음있는 남성-아브라함), "Hombre con propósito - David"(목적있는 남성-다윗), "Hombre con vision - Jose"(비전있는 남성-요세)

좋은 강의와 강사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바로 서는 마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 학교 두번째 수확여행

이번 학기가 5월 말로 마감입니다. 이번에는 산페드로 솔라로 가서 기업체와 공장, 방송국, 신문사들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수확여행과 함께 세 번째 청소년 세미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비가 부담이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몽케카구아 겨자씨 학교 개교 준비 : 교회 건축 완공(5월 예상)과 함께 겨자씨학교가 7월부터 시작

됩니다. 좋은 선생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6월에 등록을 받을 예정인데 좋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회가 성장하여 마을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농장 : 영소를 미국, 과테말라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상항중앙장로교회 이용덕 장로님 헌금)

마무리하면서

선교사가 모든 일(everything)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something)은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 일동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역비로 인하여서...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종의 사정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종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장세균 선교사

▲이메일: segyunjang@gmail.com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관련된 연관하여 새롭게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회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 철저한 에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음악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악 선율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E7 미가엘 반주기

최고의 음질과 밝은 LCD 화면

- 선명하고 밝은 LCD 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정용 스탠드
- USB 호스트 기능
- 오가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실시간 연주방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정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공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엘리성구사

에허드수정강대상

BE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엘리성의 특별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50% 할인 (50% 할인)

한국산인 에허드수정강대상

Good Design 크기를 완벽하게 재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지정상품인증을 받음

다양한 디자인을 제작(300여종)

수입(가정용) 등등

수입(가정용) 등등

수입(가정용) 등등

수입(가정용) 등등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888, 888, 888 (213)447-4011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담력, 다이어리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9)



2. 성격-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

(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난번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중 문화적 교육이 양쪽의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통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가치의 언어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차이 못지않게 우리 한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한인 자녀들에게 있어서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은 매우 커다란 문제입니다.

사실 이미 완전하게 한국의 언어와 그에 담긴 의미들과 가치들을 습득한 이후에 미국으로 온 어른들의 경우엔, 사업장이나 회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혹은 종종 어려운 법적인 사안들이 관련된 일이나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혼란이나 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그래서 영어가 모국어와도 같은 2세들의 경우에도 부모님과 대화에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혼란이나 갈등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계속해서 영어로 새로운 개념들을 익히고 쌓아가는 환경에 있기도 하구요. 하지만

는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보다 복잡해진 성격적 규범들과 교리들을 교육의 내용으로 하는 데다가 한국어가 편한 1.5세들과 영어가 편한 2세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균형을 잡기가 힘들뿐더러, 영어로 가르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2세들의 경우와는 달리, 1.5세들의 경우 스스로도 언어적 혼재가 있어서,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어떠한 언어로 우리 자녀들을 특히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교회교육의 가장 기본이 신앙교육이고 그 신앙교육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고 그 안의 진리들과 가치들과 의미들과 개념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의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겪는 언어적 혼란과 갈등은 우리 사역자들의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중언어적 교육입니다. (보다 큰 의미가 있으나) 이중언어적 교육을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진행하는 교육이라 간단히 정리한다면, 1.5세와 2세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엔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교육하는 것도 그 한 방

1세나 2세보다 1.5세가 언어적 혼란 더 많아 이중언어 교육으로 언어적 혼란과 갈등 최소화

우리 1.5세 한인자녀들의 경우는 문제가 다릅니다.

아직 언어적으로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을 온 경우인지라 언어들이 가지는 개념과 의미, 가치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익숙한 한국어와 새로이 사용해야만 하는 영어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한국어를 꾸준히 사용하여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형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그들은 매일 학교에서 익숙하지 영어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들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며 감내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혼란 속에서도 영어에 집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매진해 나가면서 그 혼란은 점차 잦아듭니다.

그러나 사실 언어적 혼란과 갈등의 문제는 교회 교육의 견지에서 생각할 때보다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한인 자녀들에게 언어적 혼란과 갈등의 문제가 경험되는 가장 주된 환경은 바로 신앙교육의 장에서입니다. 이는 신앙교육의 많은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성격적, 혹은 신학적 가치들과 규범들을 가르치는데 있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익숙한 언어로 성공공부나 교리공부를 하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들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거나, 하물며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교육하기에 성격적, 신학적 개념들과 의미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엔 그들이 대체적으로 2세들일 경우가 많고 교육의 내용도 성경의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통일하여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혹은 유치 유아부의 경우엔 한국어로 통일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법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각각의 사역자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보다 이상적인 것은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사역자가 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우리 한인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교육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볼 때 한 사역자의 지도하에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1.5세들의 경우 물론 언어적 혼란의 상황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중언어자들입니다. 그래서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 아닌 익히 알고 있는 교육의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찬양이나 예배진행 전반 그리고 "fun fellowship" 등에 있어서 영어로 교육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2세들의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을 설사 한국어로 한다 해도 일정 정도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소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언어로 진행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사역자의 재량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다 심도 깊은 교육의 상황에서는 이중언어로 교육함으로써 언어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한인 청소년들의 영적인 필요와 지적 성장의 당위들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중언어적 교육을 통해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까지도 보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욘11:7-9) 찬34장

고난 속에 놓인 욕이 만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를 완전히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째, 그는 하늘보다 높으십니다(8).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더 높은 삼중천에 계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십니다. 그가 낮아지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가 복됩니다. 둘째, 스올보다 깊으십니다(8).

그는 높으시며 동시에 깊은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앓고 일어서며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자가 진정 지혜자입니다(시139:). 셋째, 땅과 바다보다 크고 넓으십니다(9). 피조물 중 가장 크고 넓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 앞에 사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그를 향해 찬송과 경배가 생깁니다. 전능자를 상대로 겸손히 살아갑시다.

화 열사다이 하나님 (창17:1-9) 찬53장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입니다(1).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나타내신 후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을 요구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둘째, 열국의 아버지로 살라하셨습니까(4). 또 구속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

형으로서 열국의 아버로서의 역할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의 자기백성으로 제한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로서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8). 그 하나님은 언약의 상대자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교제가 일어납니다(요17:). 열사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위해 주를 더욱 의지하십시오.

수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40:1-4) 찬288장

좌절 속에 있는 다윗을 친히 구하신 하나님은 절대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구원은 어땠습니까? 첫째, 인격적이십니다(2). 그가 막힌 웅덩이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애절한 소리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다리고 견디는 태도를 아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그의 빠져가는 약한 발이 굳게 설 수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2). 성도가 설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만 참 평안과 안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하시는 그 분만이 진정 성도의 구원주이십니다. 셋째,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4). 구원으로 마치지 않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새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외신앙으로 그를 경배하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가며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목 불변하신 하나님 (말3:5-6) 찬408장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의 불신실한 상태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의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5).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점치는 자, 간음자, 거짓맹세자, 소자를 압제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떠난 그들의 모든 행위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신실치 못한 생각과 행실 때문에 방황하는 자리에 떨어져있습니다. 영적 음침으로 처절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의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6). 그러기에 그분과 그의 말씀위에 선 자는 근본을 알며 진리 위에 서서 이 생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불신실로 채워진 세상에 신실하신 그분과 그의 언약을 붙들고 겸손히 나아갑시다. 변태로 채워진 우리 시대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은 오직 불변하신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금 아베스의 경건(1) (대상2:1-55) 찬486장

대상2:55에서 아베스의 경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갈렘 가문의 살마 자손들 곧 서기관 종족이 아베스에 살았던 기록은 아베스의 이름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 도시가 아베스로 명명됨은 아베스의 경건이 특이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진정 기뻐하라는 야고보의 가르침은 아베스에게 현실화 됐습니다. 이 고난이 연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기

동같은 경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약1:1-2). 둘째, 레갑의 경건과 관련된 인물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평생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며 신앙의 지조를 지킨 레갑 가문의 경건과 버금가는 열매가 아베스에게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나 한 사람의 경건 능력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은밀하게 준비하셨다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의 현장에 드러내십니다.

토 아베스의 경건(2) (대상4:1-43) 찬495장

남쪽 유다에 초점을 맞춰 언약백성의 우월성을 강조한 역대기 기록은 구원계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계시입니다. 첫째, 아베스는 누구인가? 유다지파의 족보에 고통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아베스가 나타납니다. 그는 만성적 고통과 근심 속에서 작은 자로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불리한 환경에서 위대한 기도를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환경과

고난의 자리라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베스는 무엇을 구했습니까?(11) 그는 언약 백성의 신분을 주장하기보다 자기의 현 상태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것 저것 하려는 태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도제목, 지경확장과 근심과 고통에서의 자유를 구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신 것은 그의 기도가 산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영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집회초대, 집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예배(영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예배 설교를 위한 예배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사순절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영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다워포인트 중점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과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ring Q.)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어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이 드리는 혜택



KCDC 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 예배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배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식(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에세이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kcdc.net
이메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세상 리더들과 구별된 리더가 돼라!

기독교교육단체, 5월 교육 주제로 소중한 가정 가꾸기 제시

오브리 멀퍼스 교수는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의 미래는 리더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 기독교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참된 리더를 양성하고자 대학 강의와 설교, 컨설팅, 저술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멀퍼스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교수이자 목회 상담과 지도자 훈련을 전담하는 멀퍼스 그룹(The Malphurs Group)의 총재이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성공하는 리더는 없으며 '상황에 맞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목회자로 부임했을 때 상황에 맞추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4단계를 소개했다.

우리는 탁월한 리더를 떠올릴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조직, 공동체를 주도하고 심지어는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때로는 리더로 세워진 곳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무리하게 발휘하고자 해서 결국은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사실 리더의 능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리더의 최고 자질이 무엇이라고 일괄적으로 규정짓기도 어렵다.



1단계 : 리더로서 스스로를 파악하라

리더는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관, 동기, 신념을 동원하게 된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신학적 배경, 사역에 대한 핵심 가치관, 리더십 유형, 리더의 역량, 사역 철학과 목회 철학, 이상적인 사역 환경이라는 6가지 요소에 있어서 스스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단계 :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상을 파악하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리더의 능력...자질 규정 어려워 자신 먼저 알고 대상 파악, 하나님 뜻 따르도록 영향 줘야

리더는 1단계에서 언급한 신학적 배경, 핵심적인 사역 가치관 등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리더는 교회의 리더십 유형, 교회가 가진 역량, 교회의 목회 철학, 교회의 이상적인 사역 환경 등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교회의 힘의 구조는 어떤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

3단계 : 사역의 상황과 자신을 비교하라

리더는 1단계와 2단계에서 파악한 리더 자신과 교회를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비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것에 성공하게 된다. 리더를 적기에, 적재적소에 세움으로 자신의

영향력이 최대화되고 사역 효과 역시 최대화 된다. 반면에 적재적소에 리더를 세우지 못하면 영향력과 효과는 감소한다.

고 리더 자신에게 과중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야기되게 된다.

4단계 : 상황을 바꾸거나 적응하라

리더는 자신의 특성과 기질에 따라 고유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지만 사역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그 상황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제2, 혹은 제3의 특성을 발휘해야 한다. 어쩌면 성향이 전혀 다른 리더십을 행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상황에 따른 리더십 발휘'라고 한다.

반면에 상황을 바꾸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리더보다는 사역이나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이다. 이것을 리더는 정확히 판단해 사역 초기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면 교인들이 가치관을 이해하기도 쉽고

결국 리더십을 논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사역적 상황이다. 어떤 사역에서는 눈부신 성공을 거둔 리더가 다른 사역에서는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도인 리더란 진실한 마음가짐과 적절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증으로 특정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진실한 마음과 적절한 능력으로 특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가 놓여 있는 사역적 상황과 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리더로서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혼돈과 공허의 블랙홀 속에 빠져 표류하는 이 시대
여기 영적 전쟁의 근원을 파헤치고
하나님 도성의 거룩한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한 편의 스펙터클한 영화와 같은 책이 있다



견고한 신학적 알개를 바탕으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통전적 주해와 고대 근동 문명을 캔버스에 하여 펼쳐가는 입체적 내러티브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거룩한 흥분과 감동을 준다.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와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2012년 한 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침서!

거룩한 전쟁 I

"인류의 첫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과정들을 강해하신 분은 소강석 목사가 처음이라고 본다."
-서철원 전 총신대 신대원장

"목회자인 저자의 신학적 못지않은 창의성과 왕성한 학문적 의욕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김인환 전 총신대 총장

531면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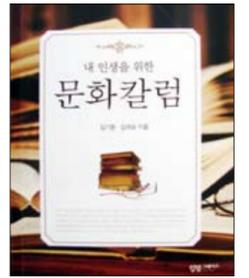
새 책 소개

“내 인생을 위한 문화칼럼”

저자 김기원, 김재성 목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쓴 책 “내 인생을 위한 문화칼럼”이 1부 표제 “점심시간에 읽는 책”처럼 손안에 사이즈로 출간됐다. 인터넷이 판을 치는 세상, 이를 권력삼아 횡포를 부리며 심대는 물론 기성세대까지 오염시키는 이 시대에 필자들은 문화의 거듭남을 강조했다.

필자들은 “문화가 거듭나면 인격이 거듭나고 인격이 거듭나면 문화가 또한 거듭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이 거듭나면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모든 인문이 거듭



자투리 시간에 보는 영혼과 정신의 양식치료제

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과 교육과 종교가 해야 할 몫인 줄 압니다”라고 말하고 이 책이 “자투리 시간, 약간의 여유의 시간에 영혼과 정신의 양식 또는 치료제가 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양약의 의사가 제초해주는 약도 효과를 볼 때가 있다는 심정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진로가방을 들고 찾아다니는 격으로 이 책을 냈다”고 머리말에서 밝혔다. 제 1부 “점심시간에 읽는 책”, 2부 “

읽고 생각하는 글”, 3부 “정신문화 거듭나기”로 각 파트마다 소제목의 단편들이 실려 있다. 총 380페이지, 키팅그레이스 출판.

마지막 종말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정서적, 경제적, 문화적 삶 속에서 신앙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 바른 삶을 가이드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양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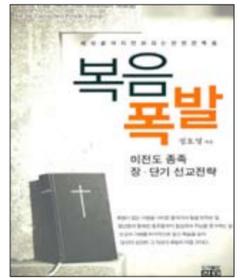
이메일: kkiwon43@yahoo.co.kr (유원정 기자)

“복음 폭발”

저자 정호영 장로

정호영 장로(은혜한교회)가 ‘복음 폭발’(도서출판 진흥)을 출간했다. ‘미전도종족 장·단기선교전략’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복음폭발에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목적과 수단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본서는 총 223쪽, 10장으로 1. 복음전파의 장애물들과 그 극복의 길을 확인한다. 2. 복음을 부정하는 주위환경을 복음이 반드시 폭발시킨다. 3. 제자들이 전도, 선교명령에 집중할 때 복음이 폭발



‘미전도종족 장·단기선교전략’ 부제로

했다. 4. 그리스도의 성육신 제자들이 폭발적인 복음에 불붙는다. 5. 미전도 종족 선교로 선교의 끝을 보는 전략을 세우자. 6. 복음의 진리가 미전도 종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한다. 7. 창조 실증능력이 강한 선교사들이 세계선교를 마무리 한다. 8. 창조 실증능력이 강한 선교사들이 최상의 천국 상급을 탄다. 9. 미전도 종족 단기선교전략은 철저한 정보기도 훈련이다. 10. 장, 단기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는 차세대의 잠여로 부흥한다. 로 나누어 있으며 각 장마다 선교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후, 상세한 해결책을 수록하고 선교의 중요성

을 피력했다. 머리말을 통해 저자는 “청소년들이 꼭 단기선교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특별히 북한 탈북자들과 북한 동족을 위한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서에는 임동선 목사(월드미션 총장), 박희민 목사(한미선교재단 이사장), 한기홍 목사(은혜한교회 담임) 등의 추천의 글이 수록됐다.

책 구입은 미주 각 기독교서점에서 가능하며 저자 수익금은 전액 북한 탈북자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213-422-7279 (이성자 기자)



맨발의 소망자
소강석 목사

1995년 발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 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패리티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전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소강석목사의 또다른 저서

